

#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은 기간, 장소, 거리, 동기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을 기준으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국내 이동이라고 하고, 국가 간 이동을 국제 이동이라고 한다. 국내 이동은 전입과 전출로 구분된다. 전입은 행정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이며, 전출은 행정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이다. 인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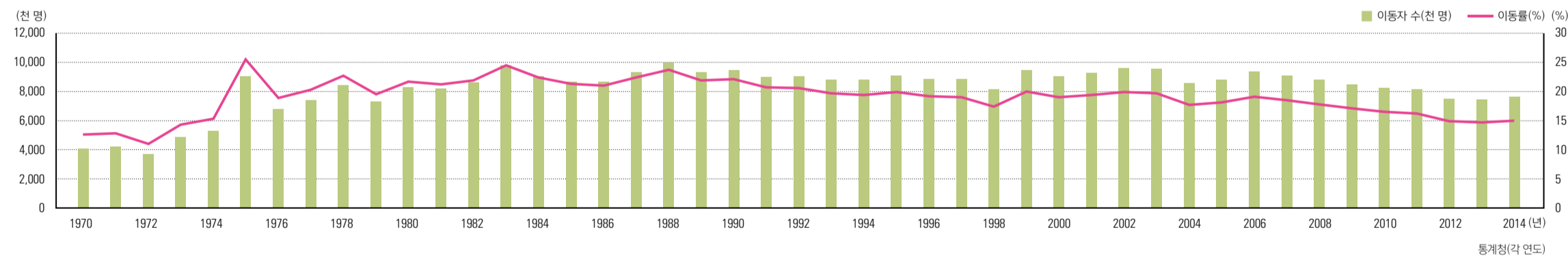
이동은 전입 통계에서 전출 통계를 뺀 것으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 전입 초과로 순인구 유입이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는 전출 초과로 순인구 유출을 의미한다. 이동자 수는 전입자와 전출자를 합친 값이며, 이동률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text{이동률(\%)} = \frac{[\text{연간 이동자 수} / \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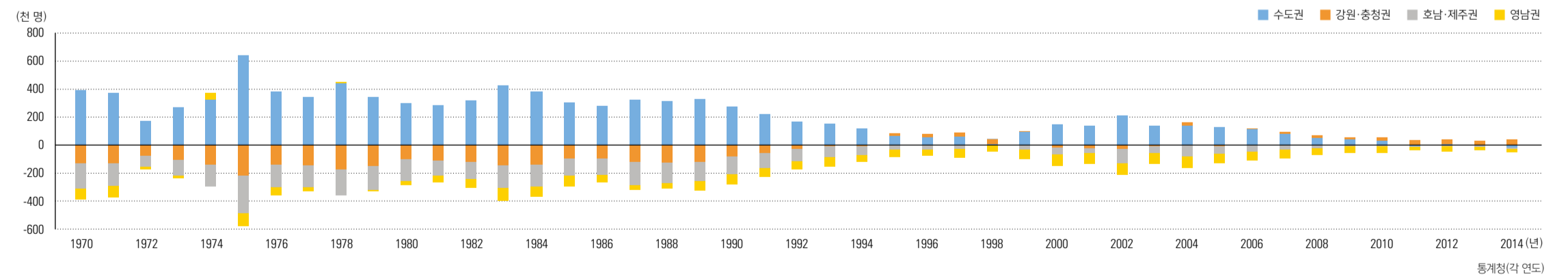
국내 이동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다가, 교통 발달, 고령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인구 이동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의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취업과 학업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 균형 개

발 정책에 따라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비수도권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도권 내부의 인구 이동을 서울과 인천·경기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서울에서 인천·경기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는 1990년 1,06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유출의 대부분은 인천·경기권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인구 이동



순이동자 수



국제 이동(내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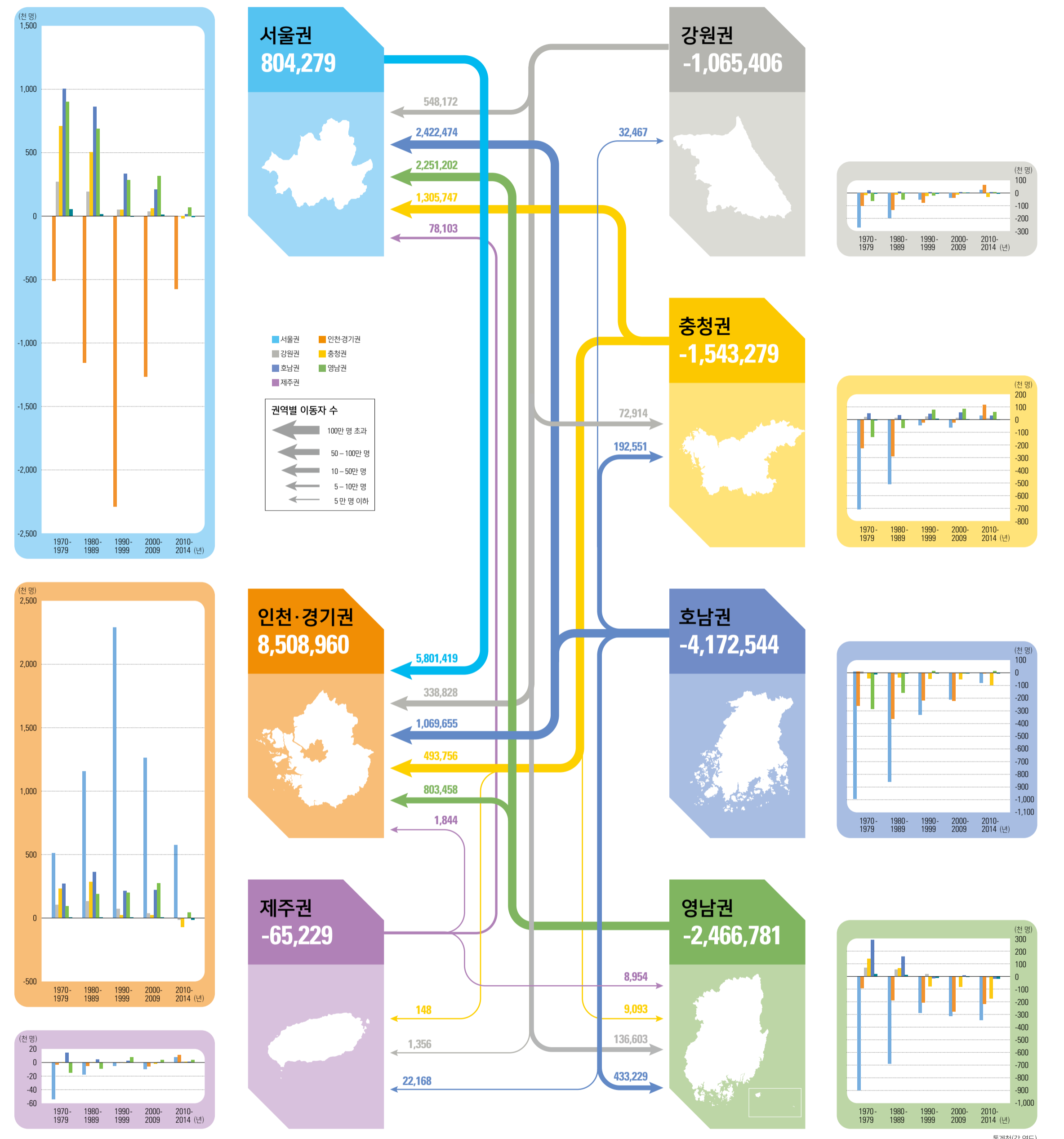


국제 이동은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다. 국제 이동은 입국자 수와 출국자 수의 차이이며 입국이 출국보다 많은 경우는 입국 초과로 순유입이고, 출국이 입국보다 많은 경우는 출국 초과로 순유출이 된다. 국제 총이동은 입국자와 출국자 수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아지면서 국제 이동의 순유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했을 때는 국제결혼, 취업, 유학 등으로 외국인의 순유입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구의 유출입

인구 순이동(1970 - 2014년)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순이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년간 서울권의 순이동자는 약 80만 명으로,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다시 인천·경기권으로 유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충청, 호남, 영남권에서 많은 인구가 서울권으로 유입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며, 많은 인구가 인천·경기권으로 이동하였다. 인천·경기권의 순이동자는 약 850만 명으로 최대 순이동 지역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인천·경기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대부분 서울로 유입되었다. 이를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권의 순이동자는 약 -100만 명으로 대부분 서울, 인천·경기권으로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다. 충청권의 순이동자는 약 -150만 명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울, 인천·경기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다. 한편 1990년대 호남권, 영남권에 순이동으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호남권의 순이동자는 약 -420만 명으로 1970년대

와 1980년대에 서울과 인천·경기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다. 영남권의 순이동자는 약 -250만 명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서울, 인천·경기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충청, 호남권에서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권의 순이동자는 약 -6.5만 명이다. 제주권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다.

국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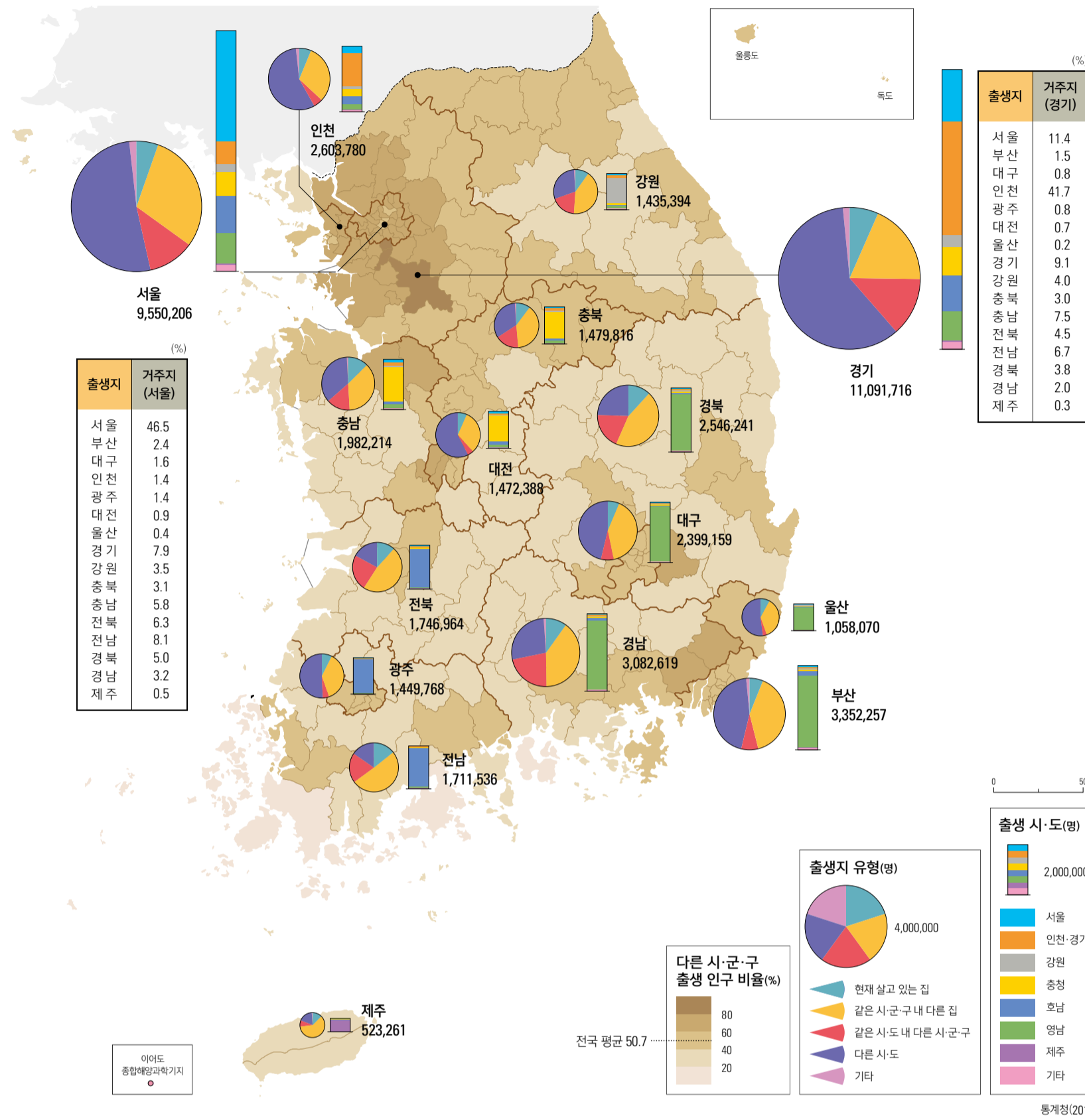
국내 이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는 서울이 15.9%로 가장 높고, 경기(12.2%), 경북(9.5%), 전남(8.8%) 순이다.

지역	인구	구성비	지역	인구	구성비
전국	47,485	100.0	강원	2,255	4.7
서울	7,535	15.9	충북	2,110	4.4
부산	2,935	6.2	충남	3,232	6.8
대구	1,948	4.1	전북	3,180	6.7
인천	1,626	3.4	전남	4,180	8.8
광주	1,115	2.3	경북	4,518	9.5
대전	961	2.0	경남	4,045	8.5
울산	747	1.6	제주	575	1.2
경기	5,815	12.2	기타	63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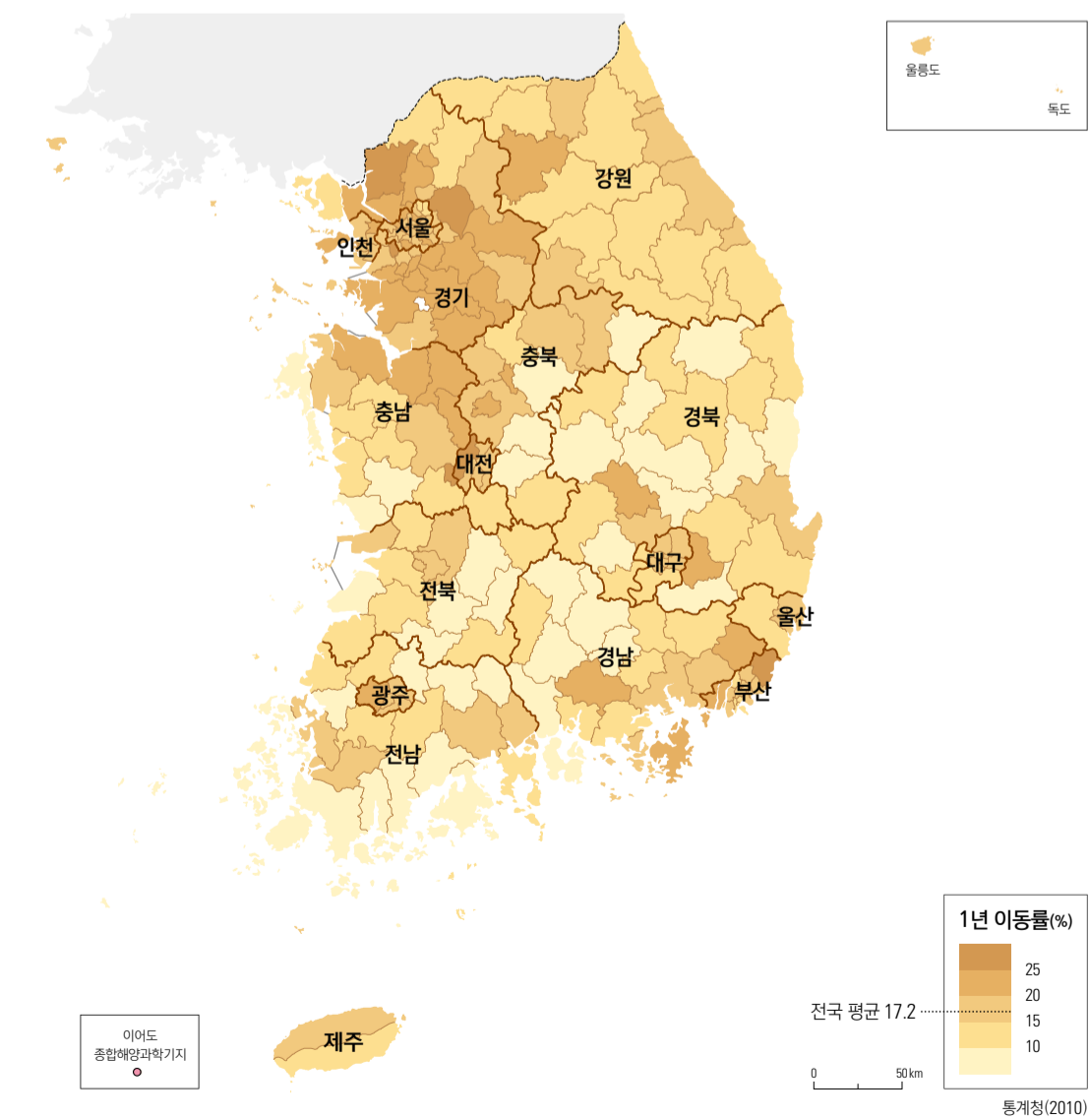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의 출생지 분포의 경우, 서울 인구의 출생지는 서울(46.5%), 호남권(15.7%), 영남권(12.7%), 충청권(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거주 인구를 시·군·구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 출생지와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특히 경기 용인, 충남 계룡, 경기 의왕, 성남 분당, 과천 등 신도시 지역이 다른 시·군·구 출생자 비율이 80% 이상이다.

단기간의 인구 이동은 1년 및 5년 간의 인구 이동률로 살펴볼 수 있다. 인구 이동률은 시·군·구 간 이동과 시·군·구 내 이동을 합한 인구 이동을 인구로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년간 인구 이동률보다 5년간 인구 이동률이 더 높다. 단기간의 인구 이동은 시·군·구 간 이동보다 시·군·구 내 이동이 많고, 시·도 간 이동보다 시·도 내 이동이 많다. 국내 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도시화, 산업화 시기에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지역 균형 개발, 교통 발달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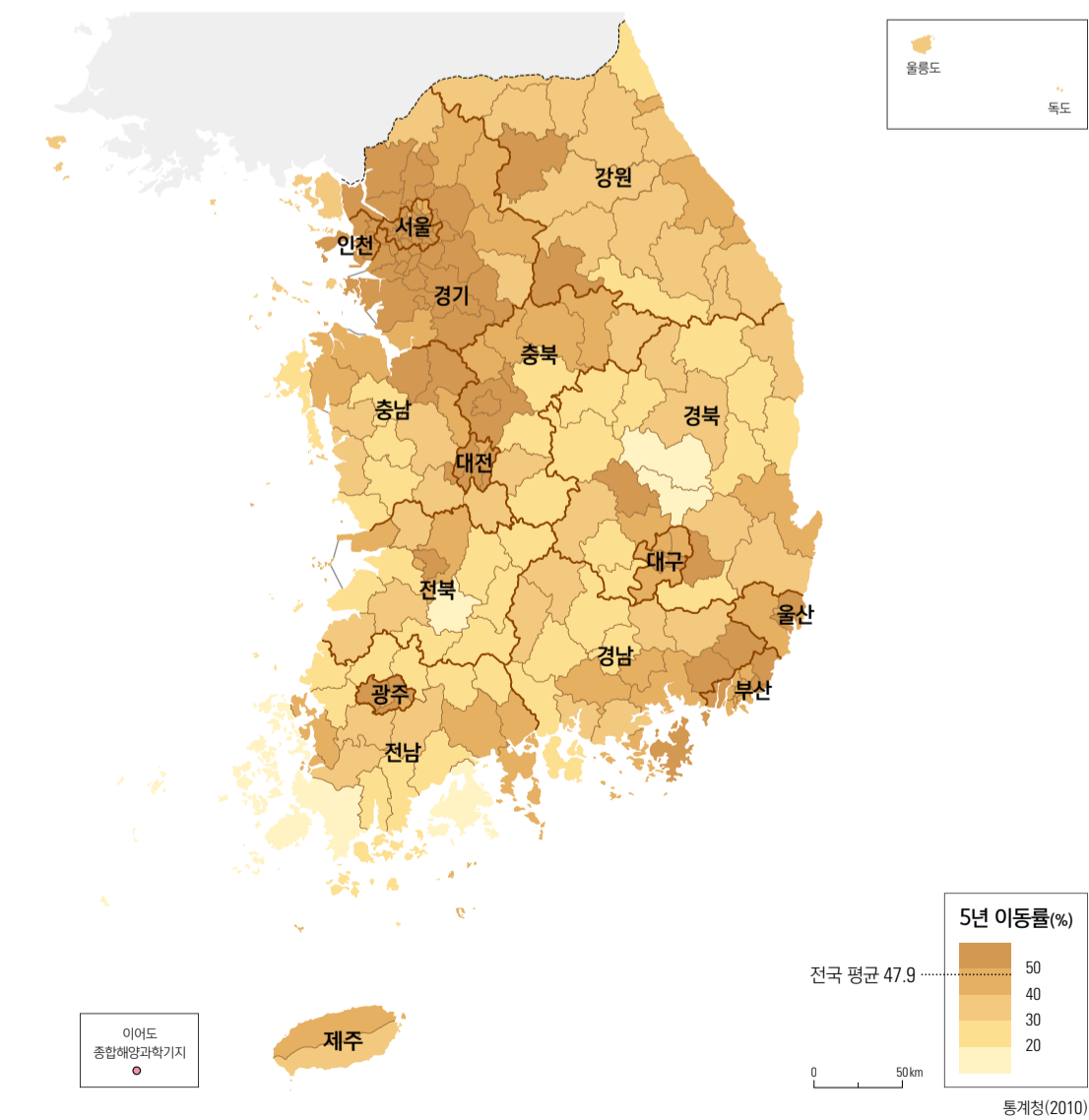
출생지 유형별 인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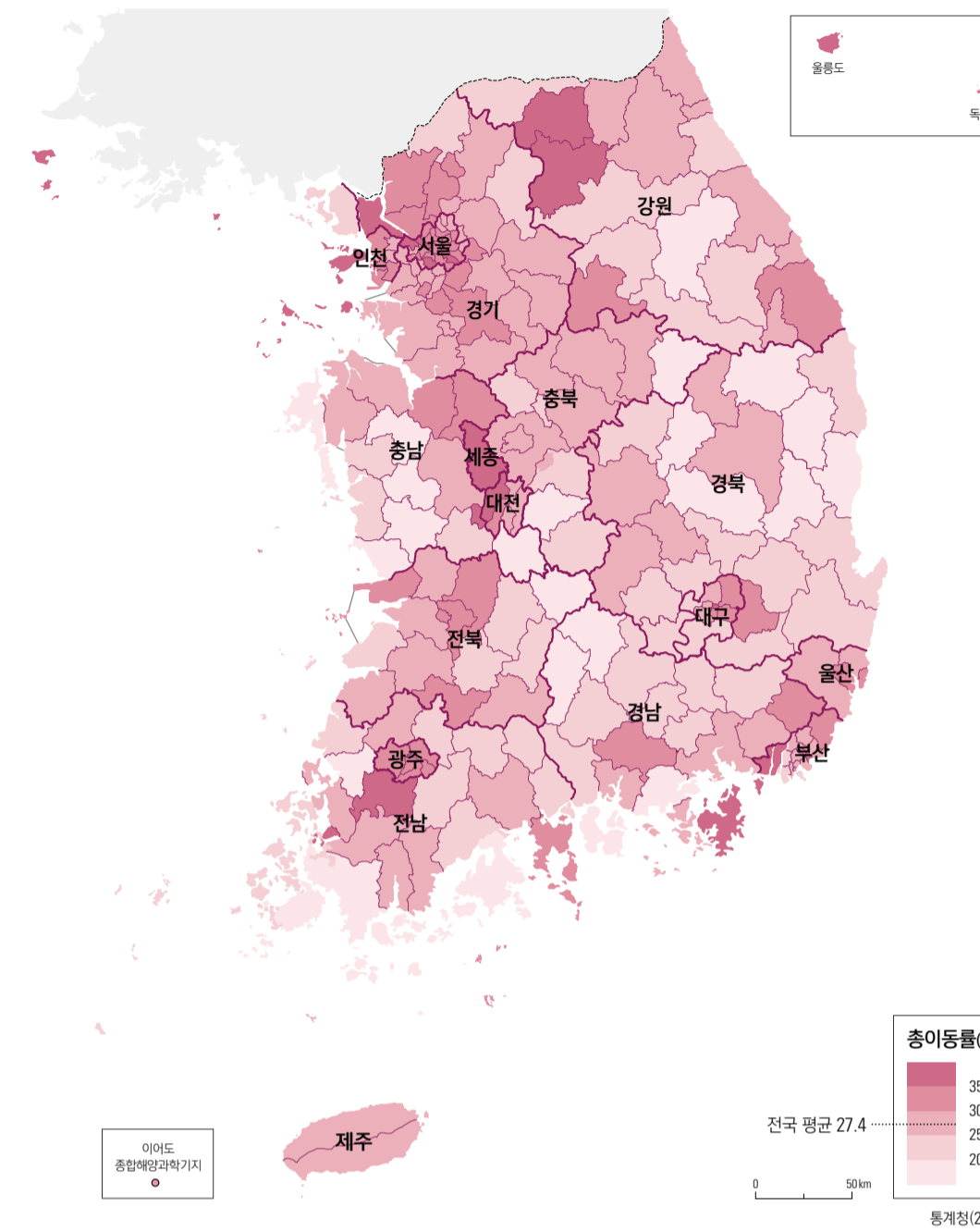
1년 간 인구 이동률(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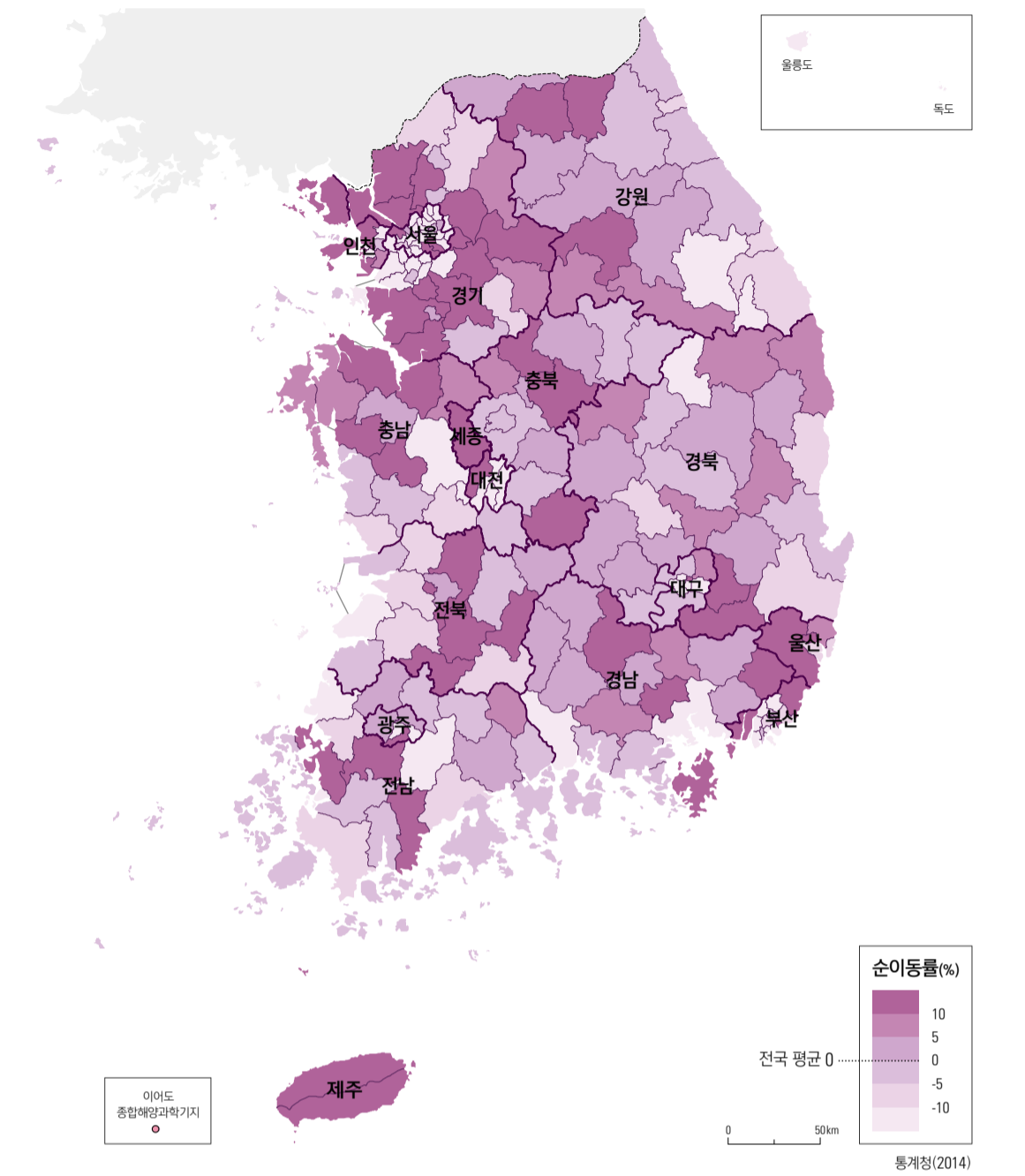
5년 간 인구 이동률(2010년)



총이동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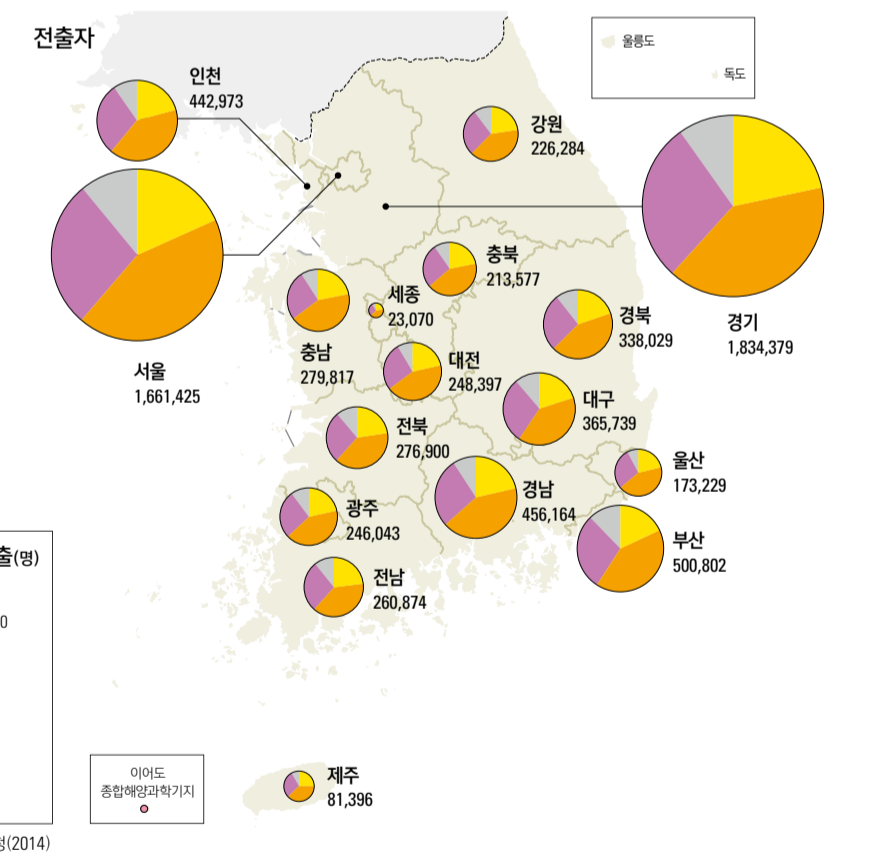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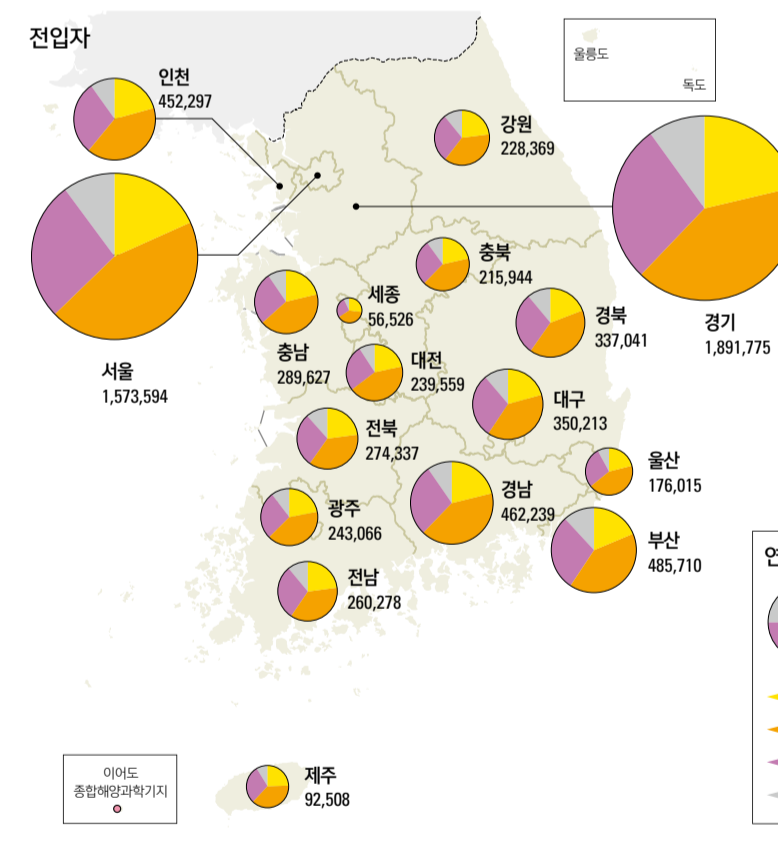


순이동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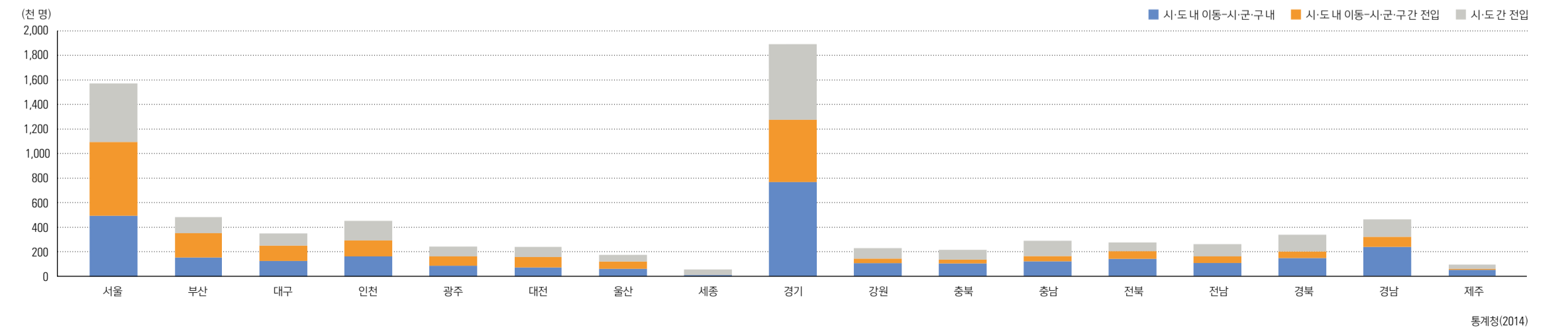


인구 이동률은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이동자 비율로 총이동률과 순이동률로 나눌 수 있다. 총이동률은 전입과 전출을 합한 총이동자에 대한 것이며, 순이동률은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순이동자에 대한 것이다. 2014년의 총이동률은 세종시가 57%로 가장 높고, 경남 거창군이 15%로 가장 낮다. 순이동률은 부산 영도구가 -25%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으며, 세종시가 24%로 인구 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인구 이동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입·전출에서 공통적으로 20~40세 연령대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 이동자 수(전입자 기준)에서 국내 이동을 시·도 내·시·군·구 내 이동, 시·도 내·시·군·구 간 전입, 시·도 간 전입 등으로 나누어 보면, 장거리 이동인 시·도 간 이동자 비율은 세종시가 82%로 가장 높고, 전북이 26%로 가장 낮았다. 단거리 시·군·구 내 이동 비율은 경기도가 41%로 가장 높으며, 세종시가 18%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시·도 이동(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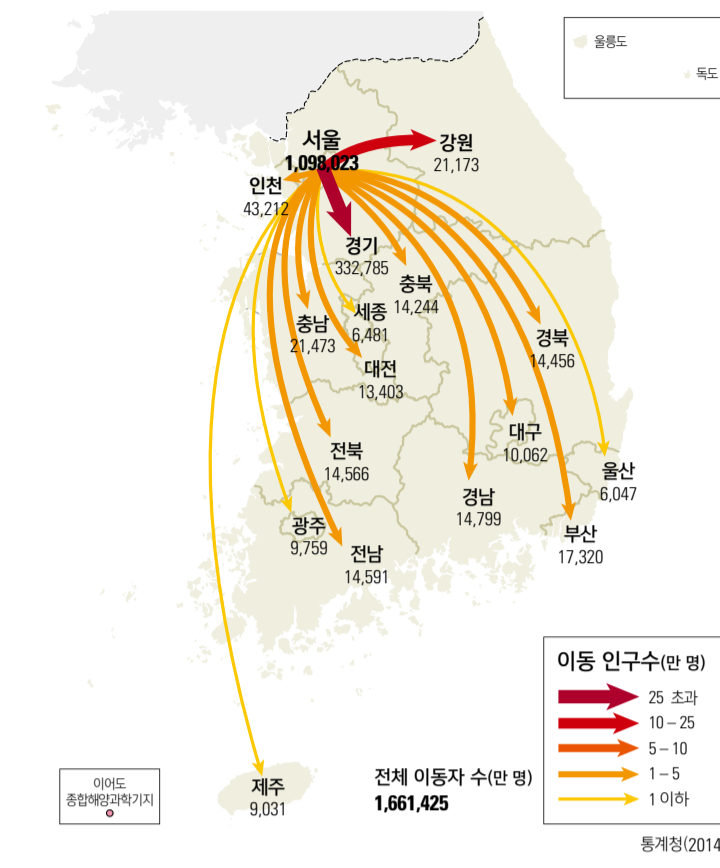
시·도별 이동자 수(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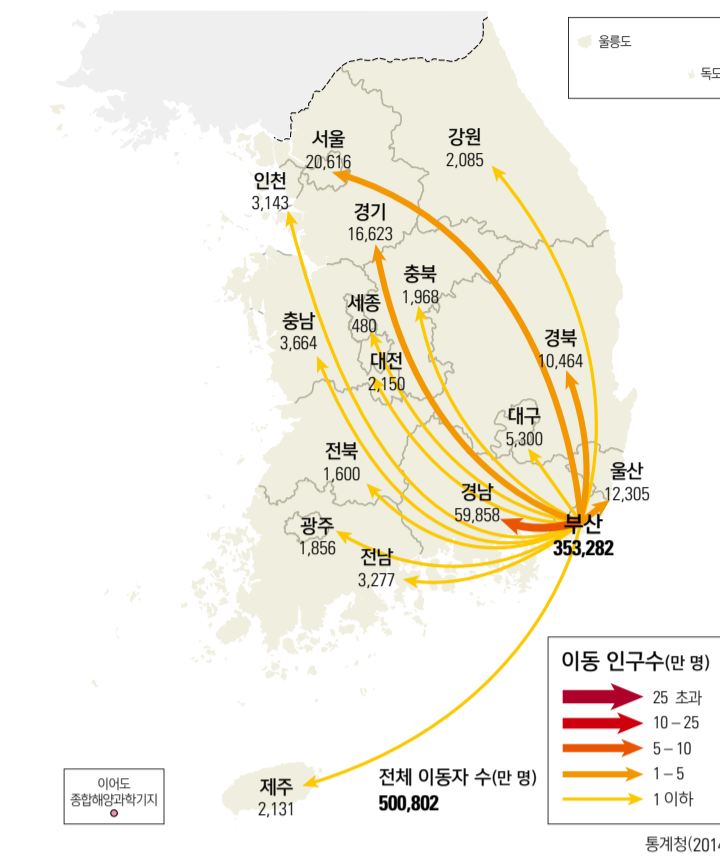
2014년 현재 전국 이동자 수는 763만 명이며, 인구 이동률은 15%이다. 지역별 인구 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률은 세종이 24%(3만 3천 명)로 가장 높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서울이 -0.9%(-8만 8천 명)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구분	전입자	전출자	순이동률
전국	7,629	7,629	0
서울	1,574	1,661	-0.9
부산	486	501	-0.4
대구	350	366	-0.6
인천	452	443	0.3
광주	243	246	-0.2
대전	240	248	-0.6
울산	176	173	0.2
세종	57	23	24.2
경기	1,892	1,834	0.5
강원	228	226	0.1
충북	216	214	0.2
충남	290	280	0.5
전북	274	277	-0.1
전남	260	261	0
경북	337	338	0
경남	462	456	0.2
제주	93	8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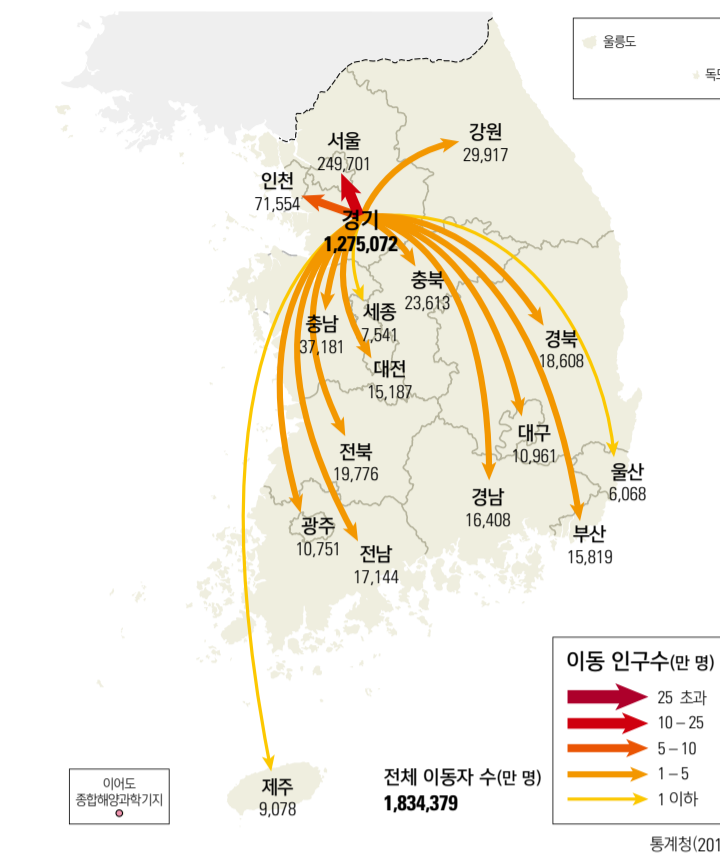
서울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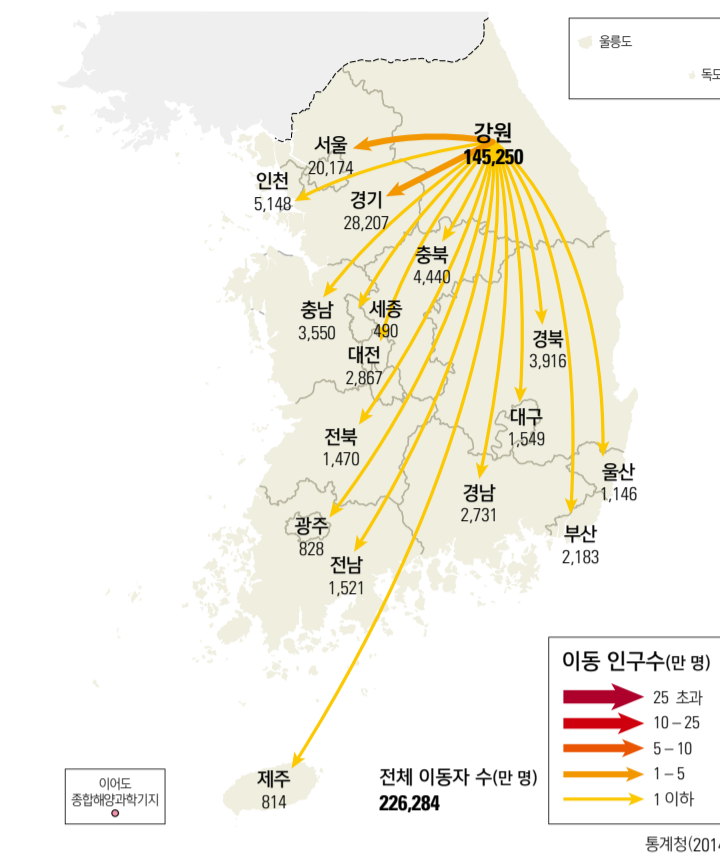
부산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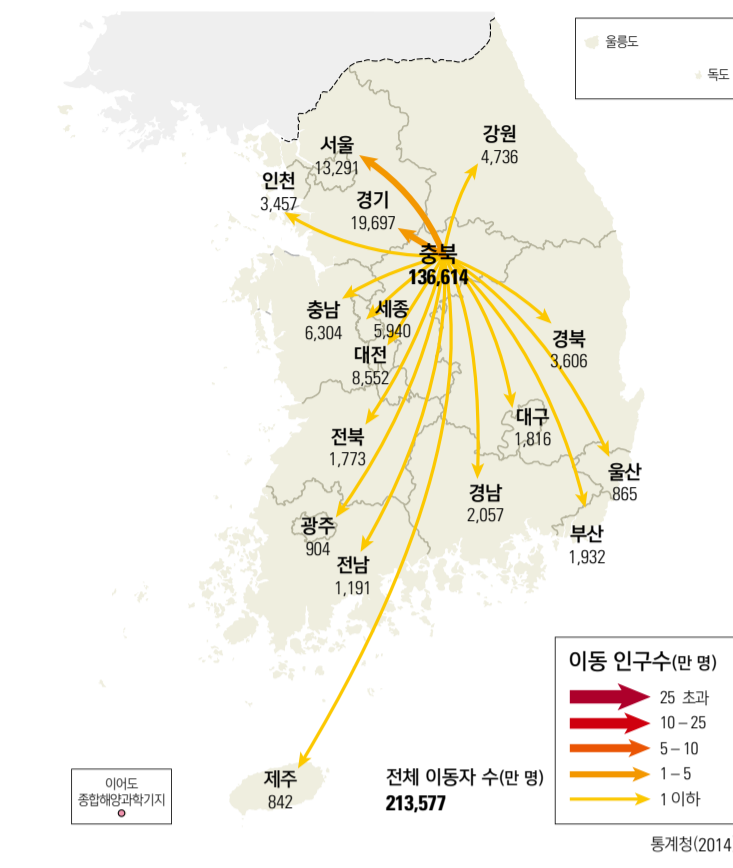
경기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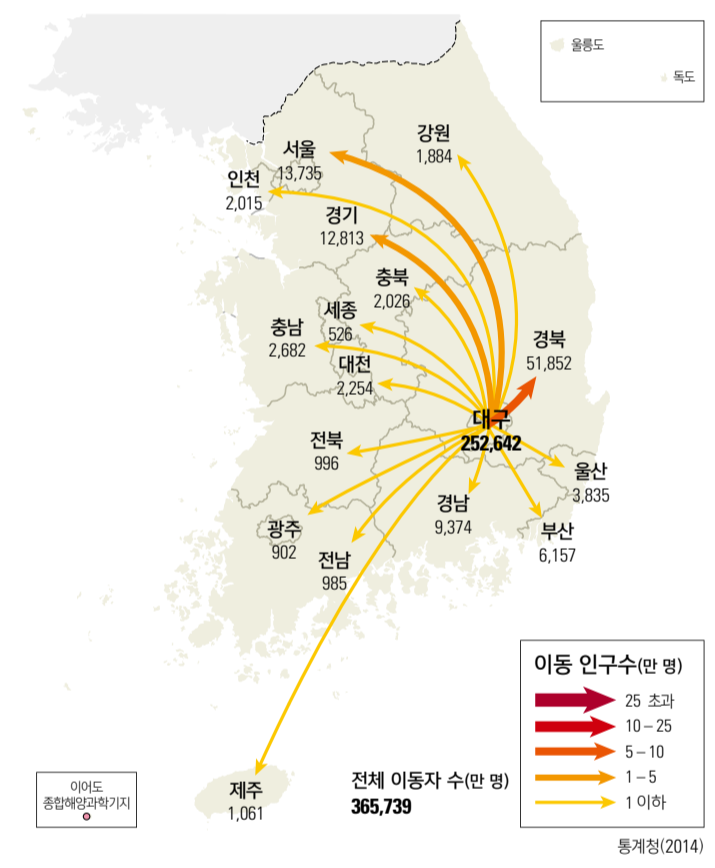
강원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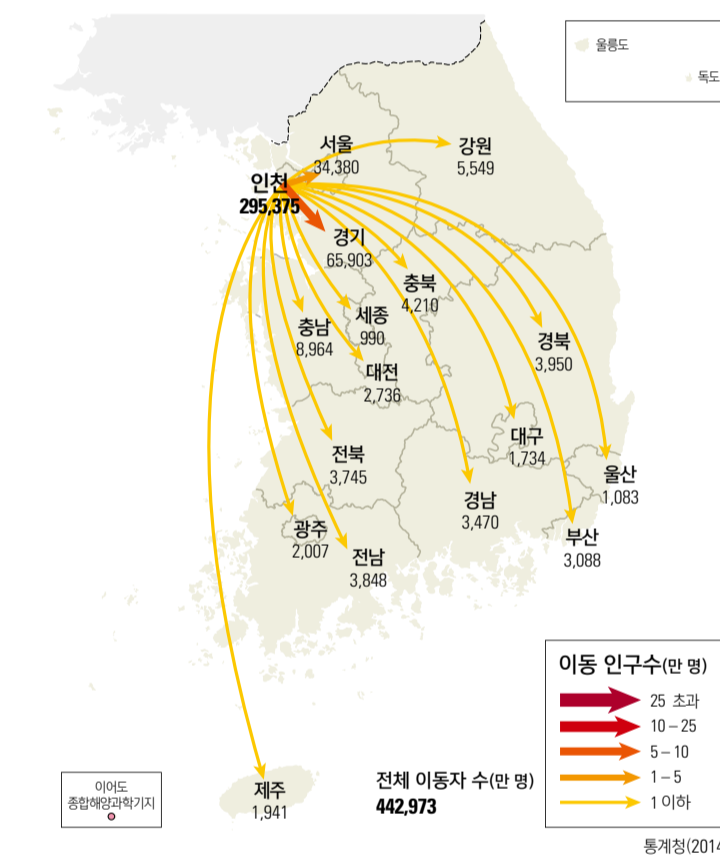
충북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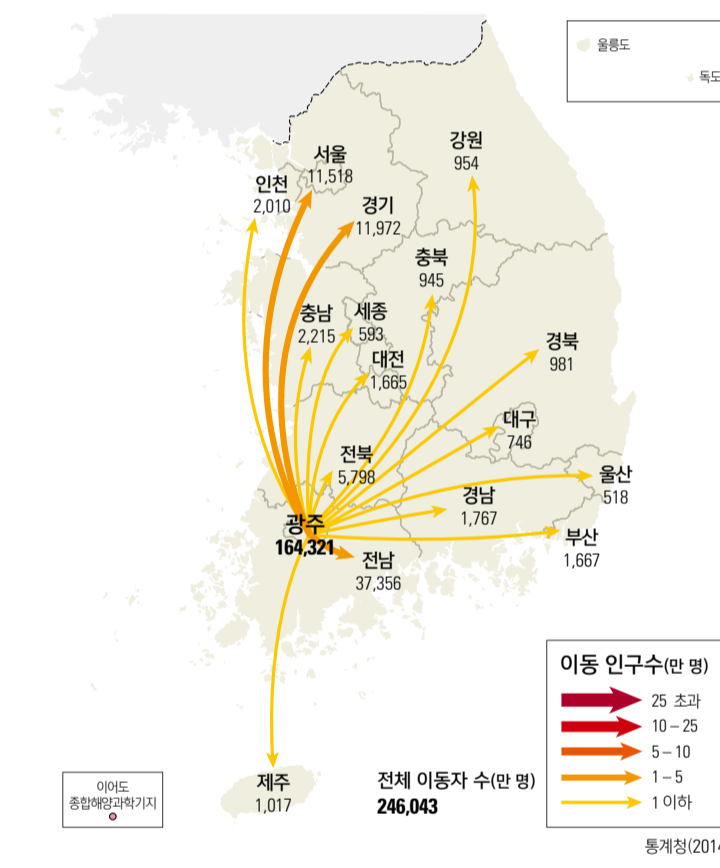
대구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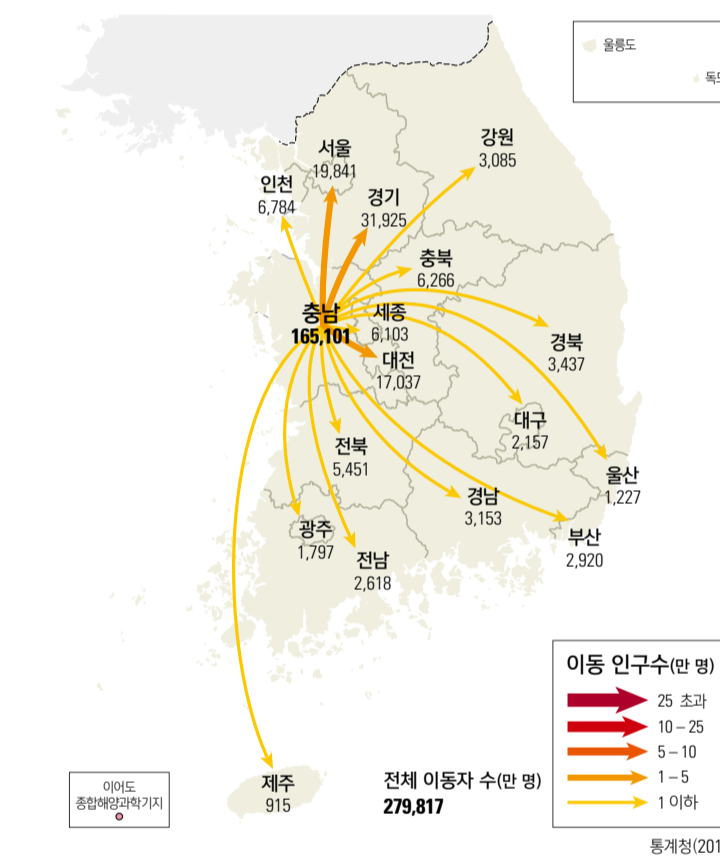
인천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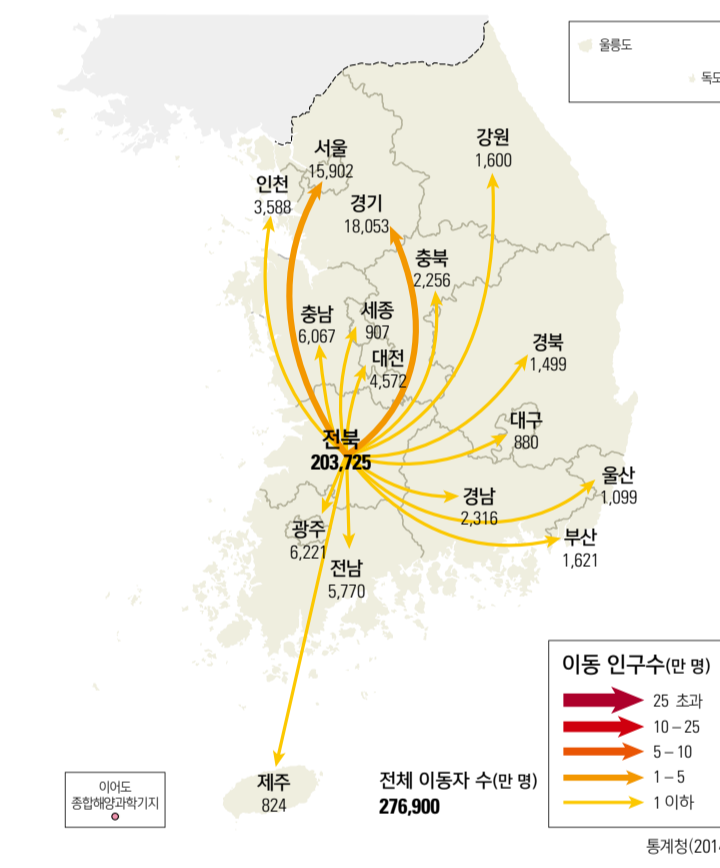
광주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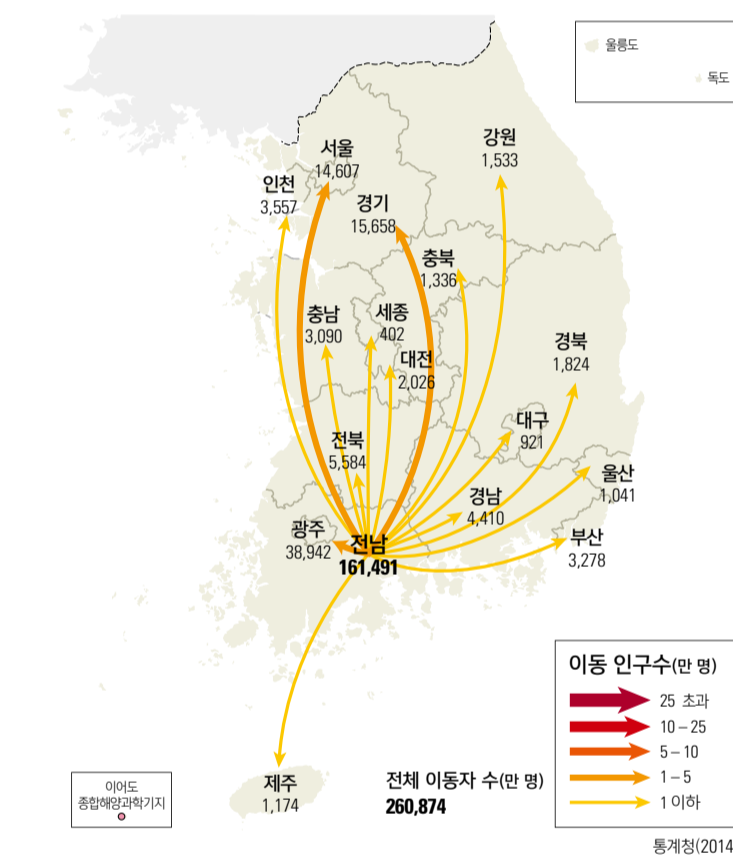
충남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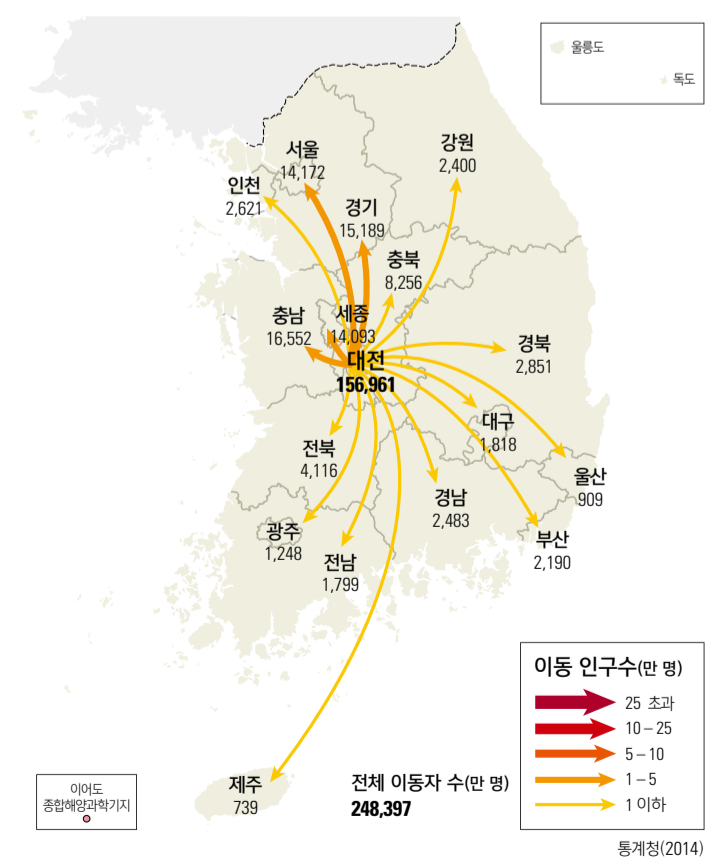
전북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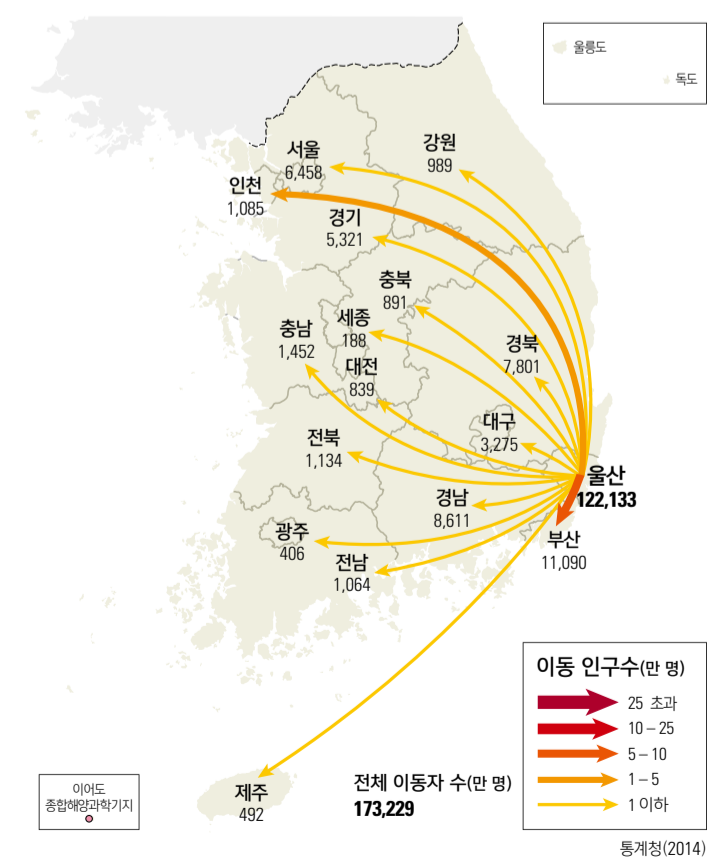
전남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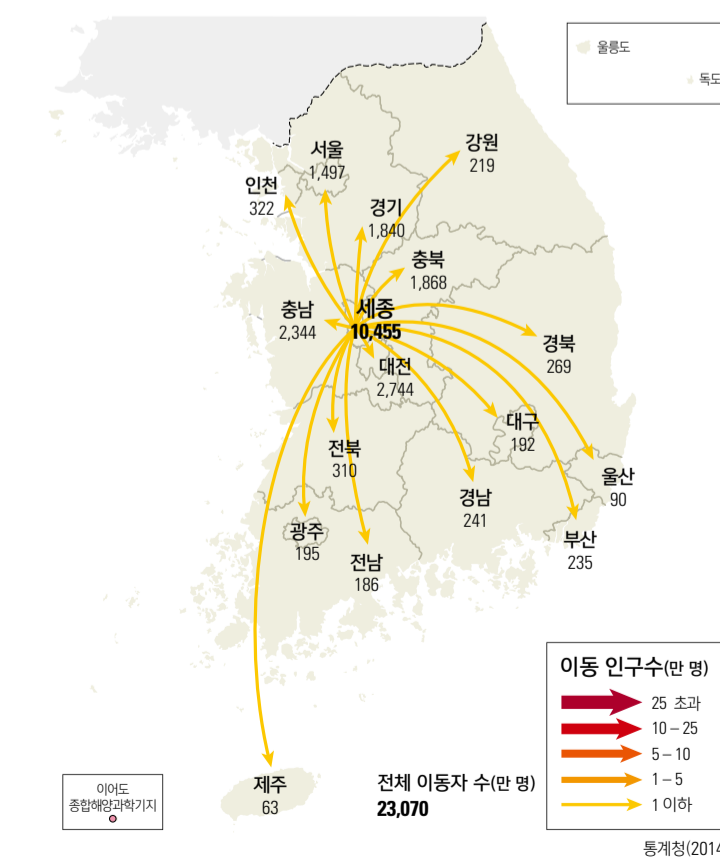
대전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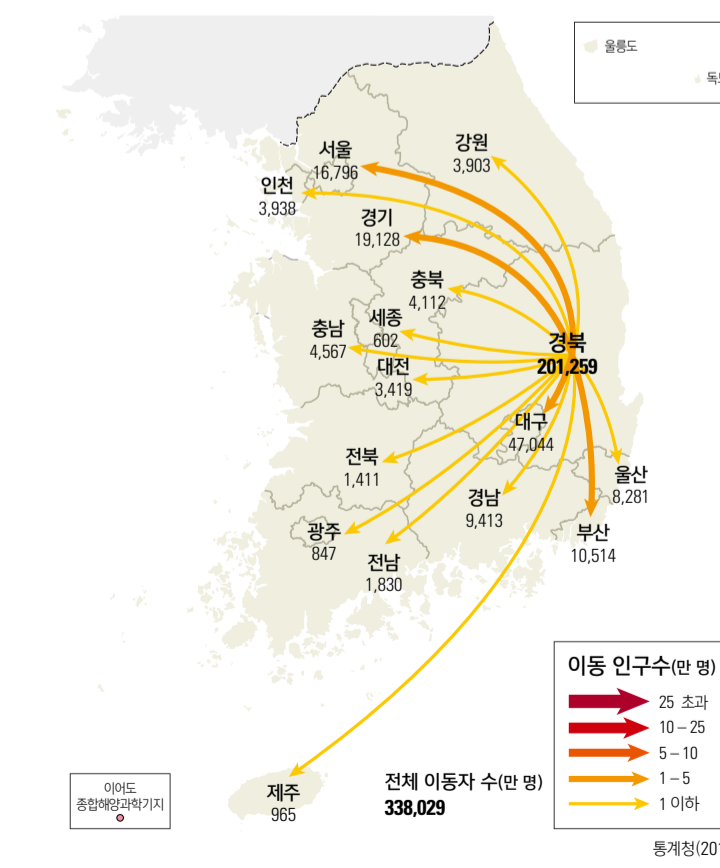
울산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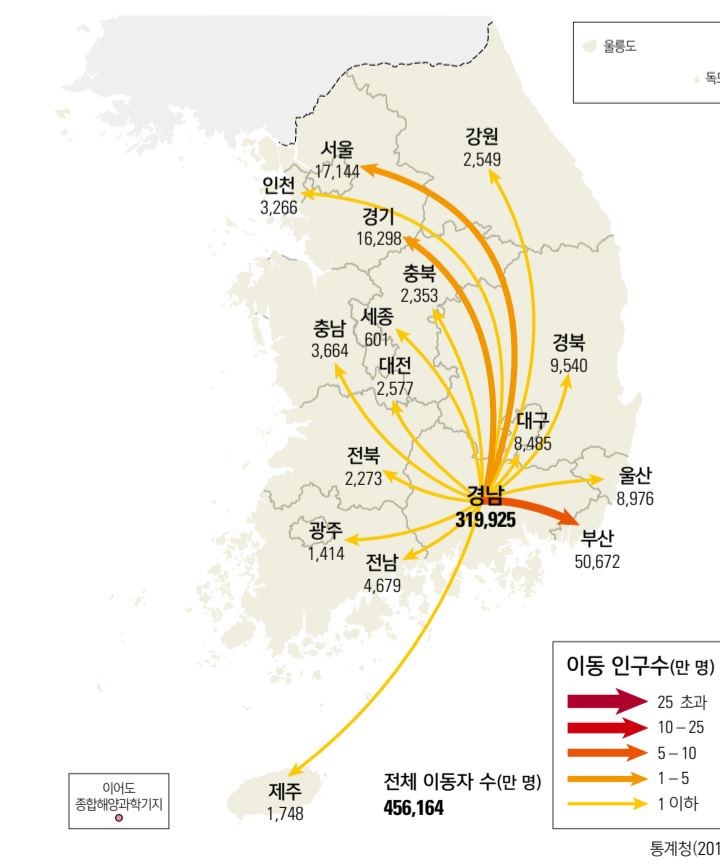
세종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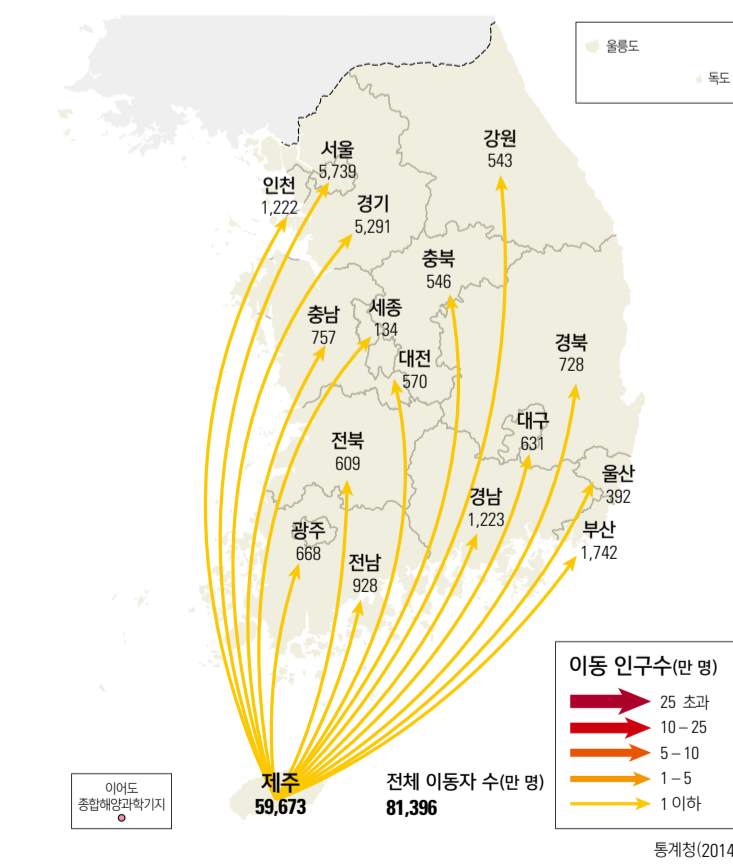
경북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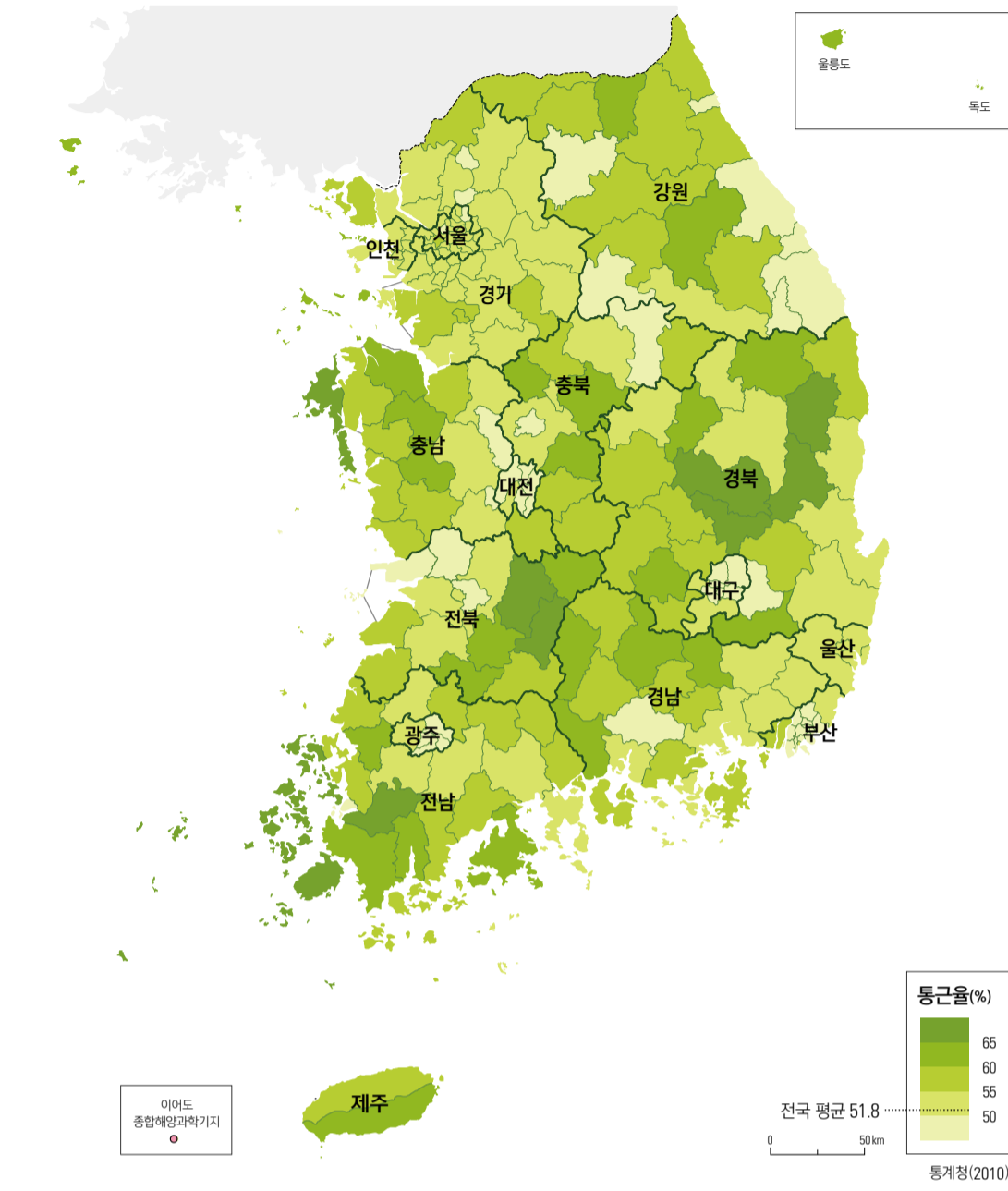
경남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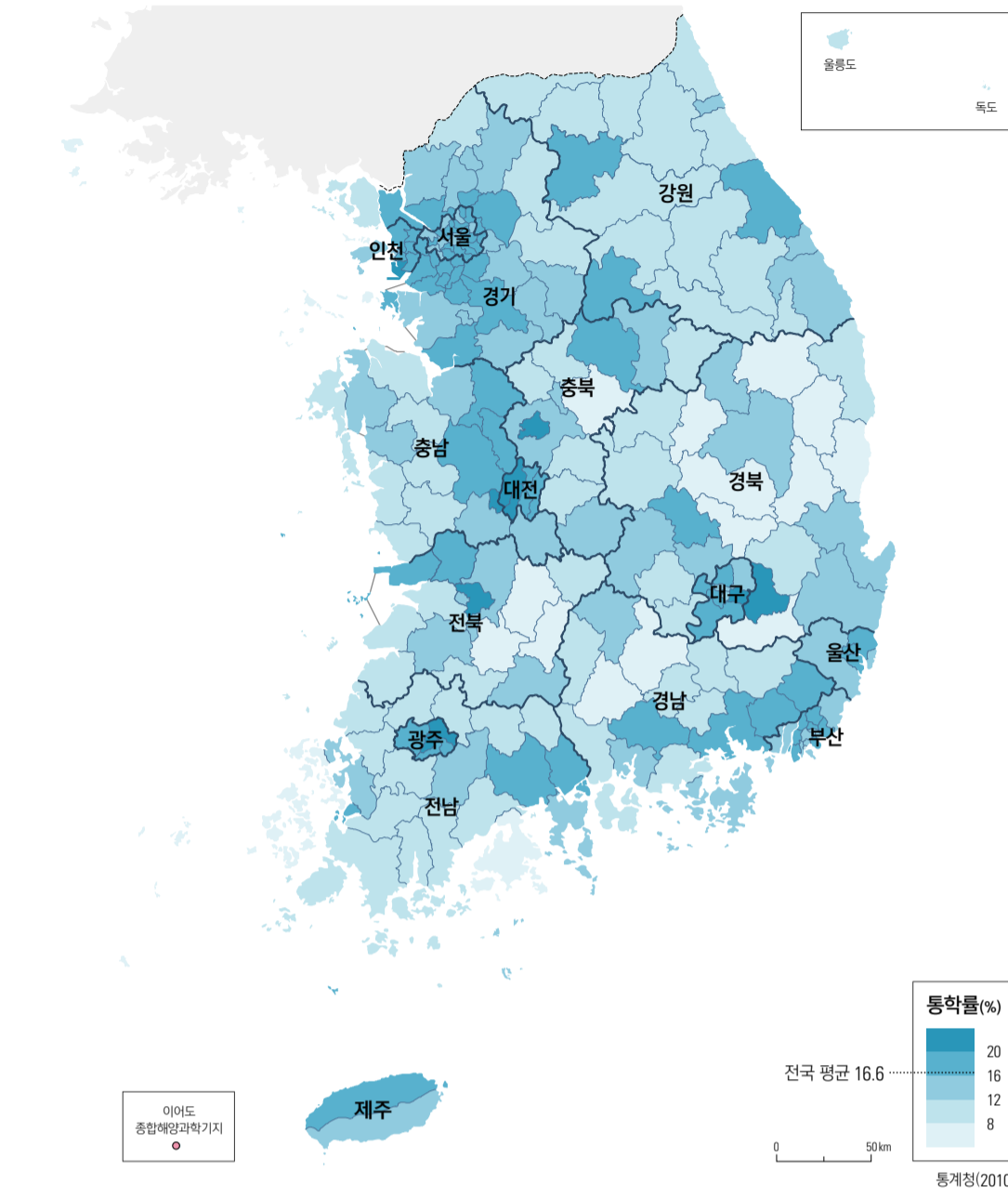
제주 인구 이동(전출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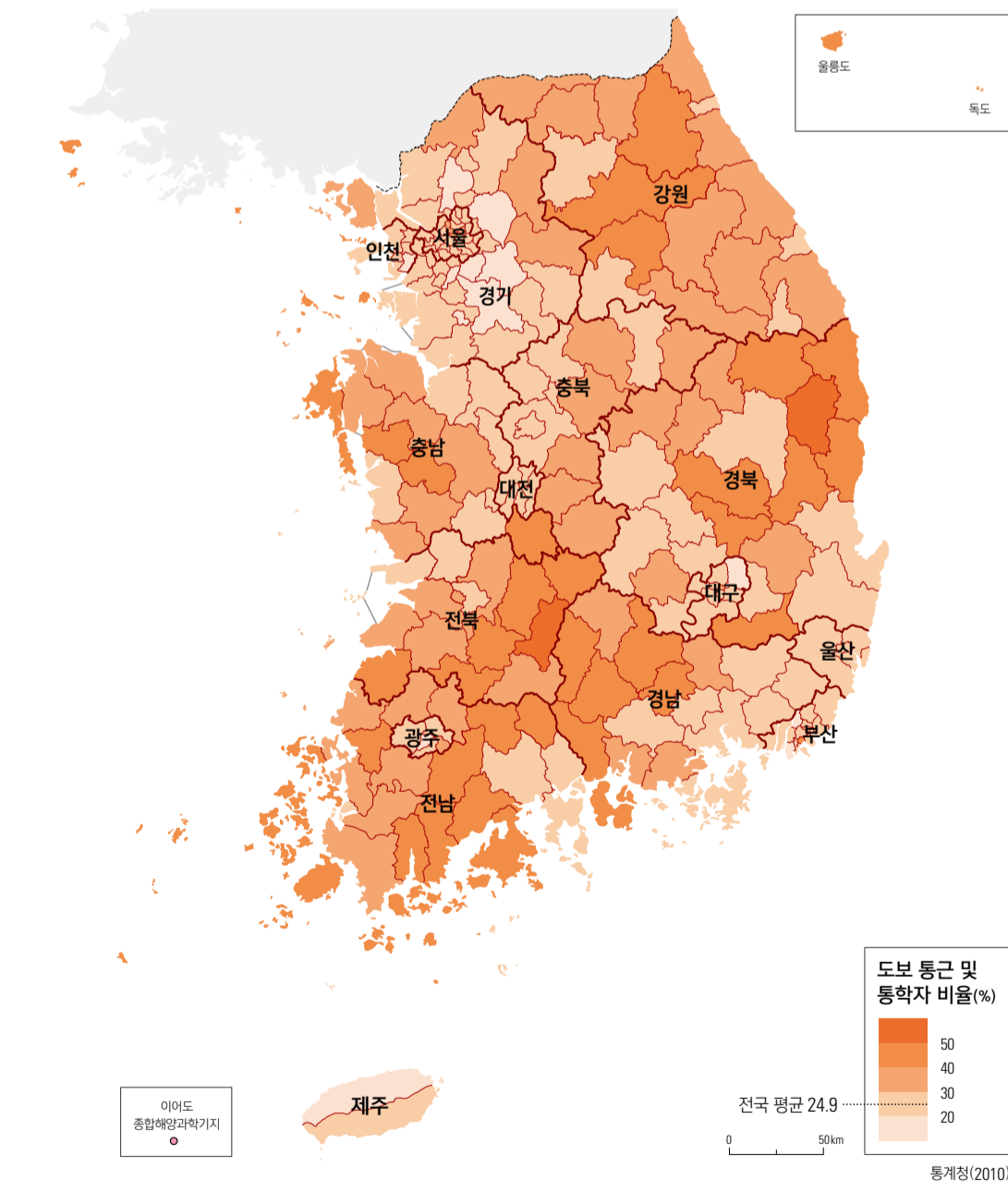
통근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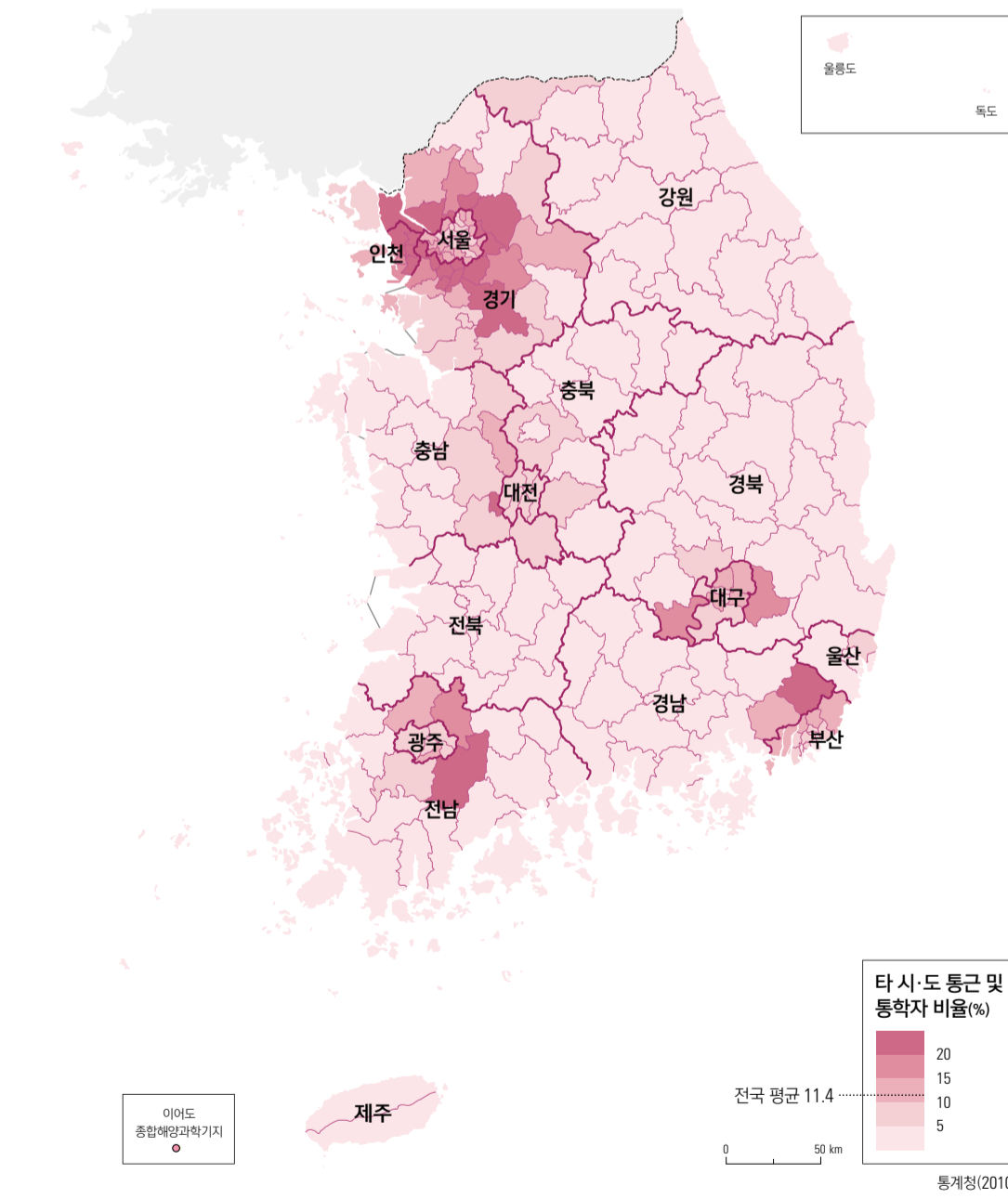
통학률(2010년)



도보 통근 및 통학자 비율(2010년)



타 시·도 통근 및 통학자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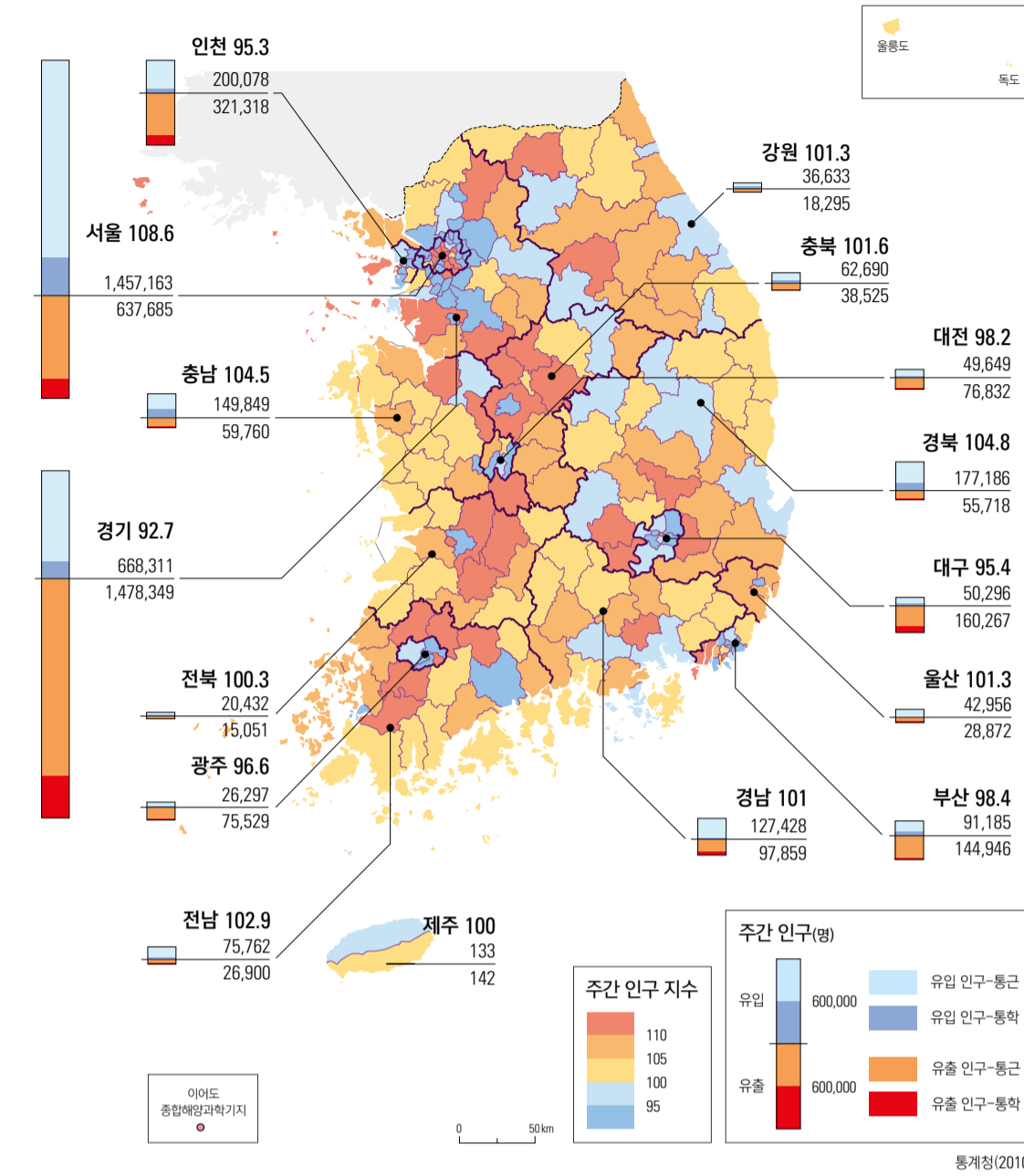
통근율, 통학률, 주간 인구 지수 등은 영구 이동이 아닌 일시적인 인구 이동을 나타낸다. 통근율은 12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려 다니는 자의 비율로, 전국 평균 51.8%이다. 통학률은

12세 이상 인구 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정규 학교 및 각종 학원에 다니는 자의 비율로, 전국 평균은 16.6%이다. 통근·통학자의 이동 수단은 평상시 출근이나 등교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으로, 도보, 승용차, 버스, 전철, 기차, 택시 등의 단일 교통수단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수단을 이용한다. 2010년 현재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4.9%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23.9%

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남이 33.7%로 가장 높다. 타 시·도 통근·통학자 비율은 전국 평균 11.4%이며, 수도권이 17.8%(경기 22.3%, 인천 20.5%, 서울 10.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5.1%이다.

주간 인구 지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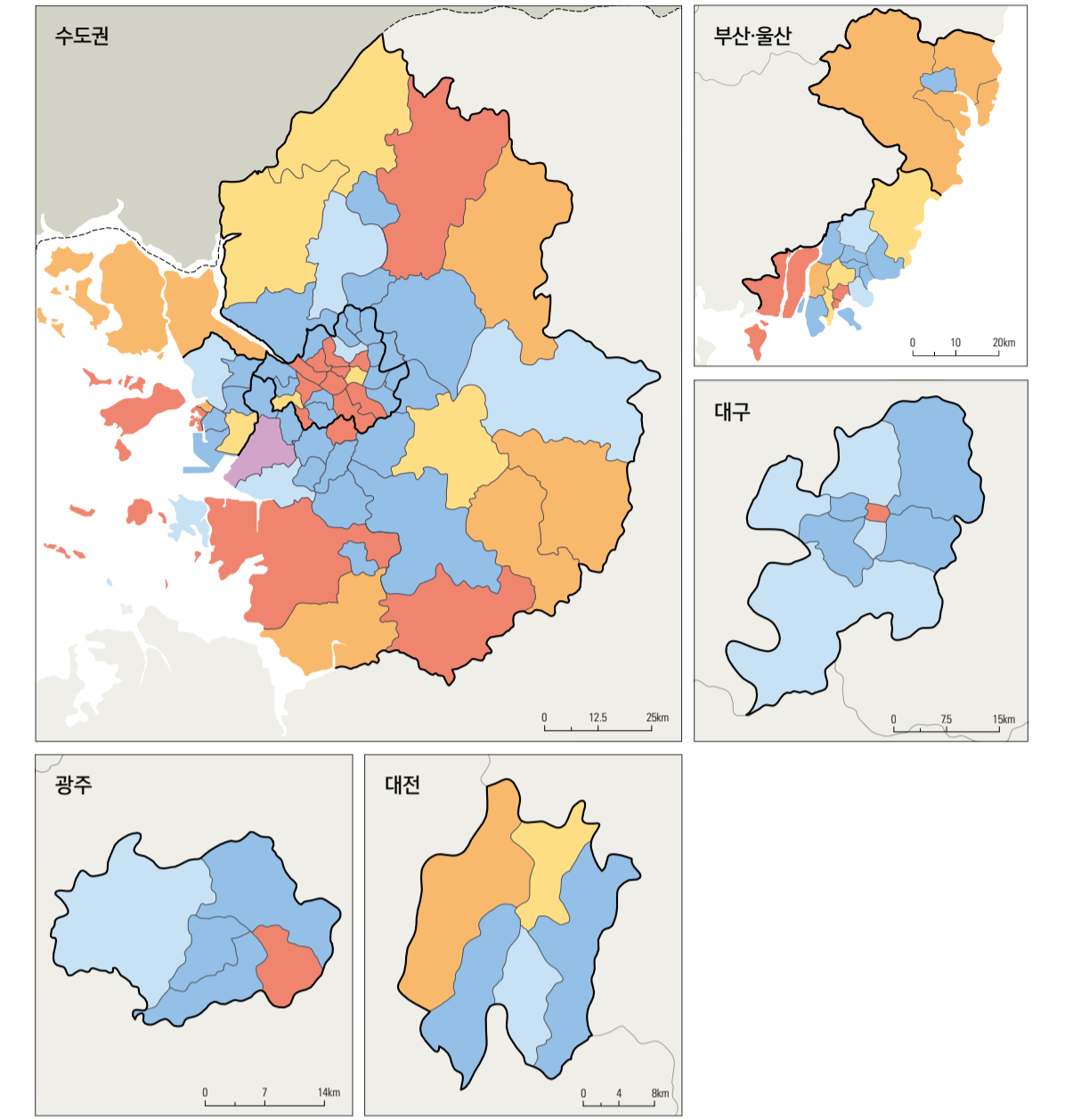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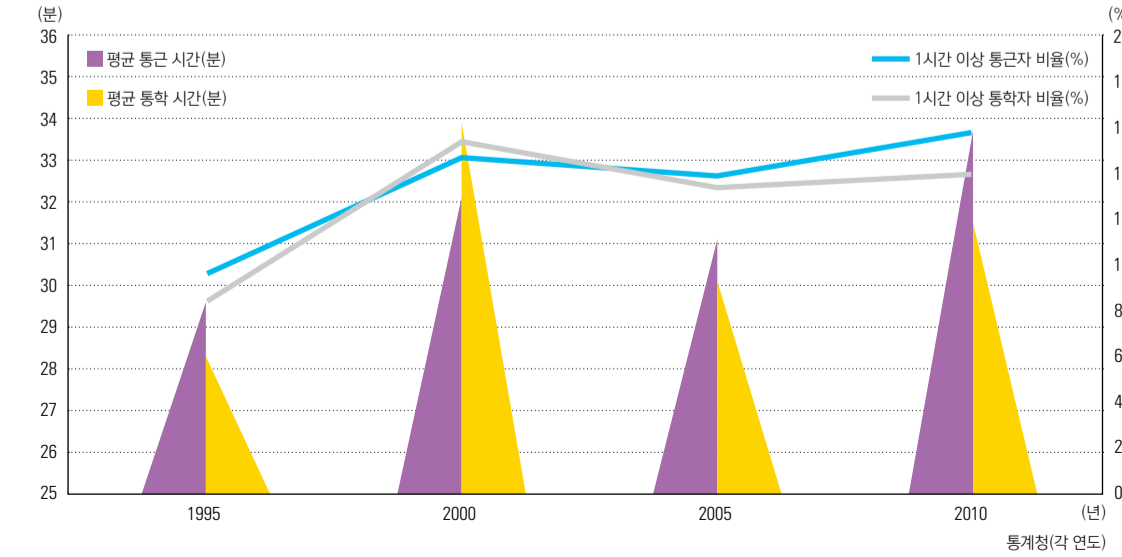


시·도별 주간 인구 지수 최대·최소 시·군·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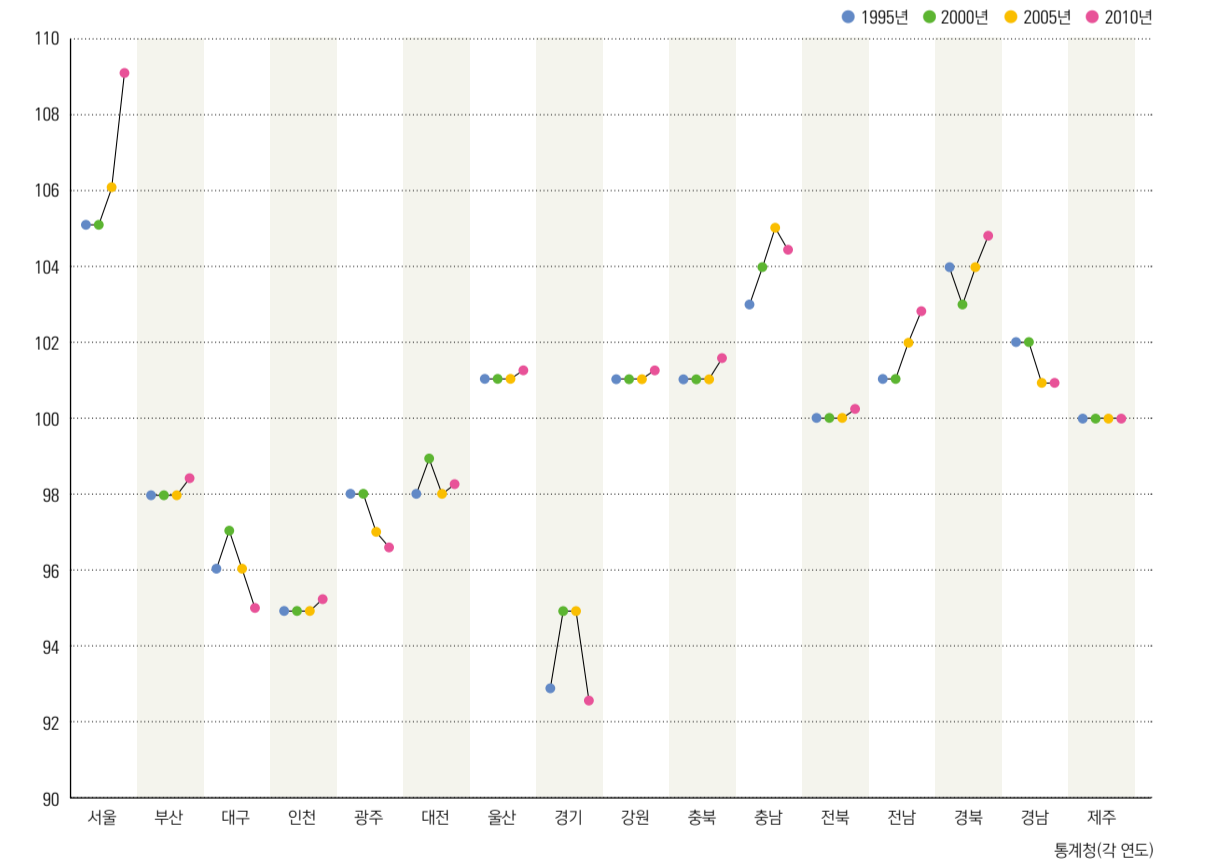
구분	최대			최소		
	시·군·구	상주인구	주간 인구 지수	시·군·구	상주인구	주간 인구 지수
서울	중구	117	406	도봉구	343	274
부산	강서구	52	110	북구	297	237
대구	중구	72	121	수성구	438	387
인천	중구	81	133	계양구	331	286
광주	동구	103	133	남구	212	191
대전	유성구	286	314	서구	492	453
울산	북구	166	178	중구	218	174
경기	포천시	134	161	광명시	324	256
강원	횡성군	37	41	태백시	51	49
충북	진천군	59	70	장주시	654	605
충남	금산군	52	62	계룡시	40	38
전북	임주군	81	96	진주시	639	602
전남	영암군	55	74	목포시	246	225
경북	성주군	36	42	안동시	164	162
경남	합안군	59	68	진주시	331	322
제주	서귀포시	128	133	제주시	395	390

통계청(2010)

평균 통학·통근 시간(1995 - 2010년)



시·도별 주간 인구 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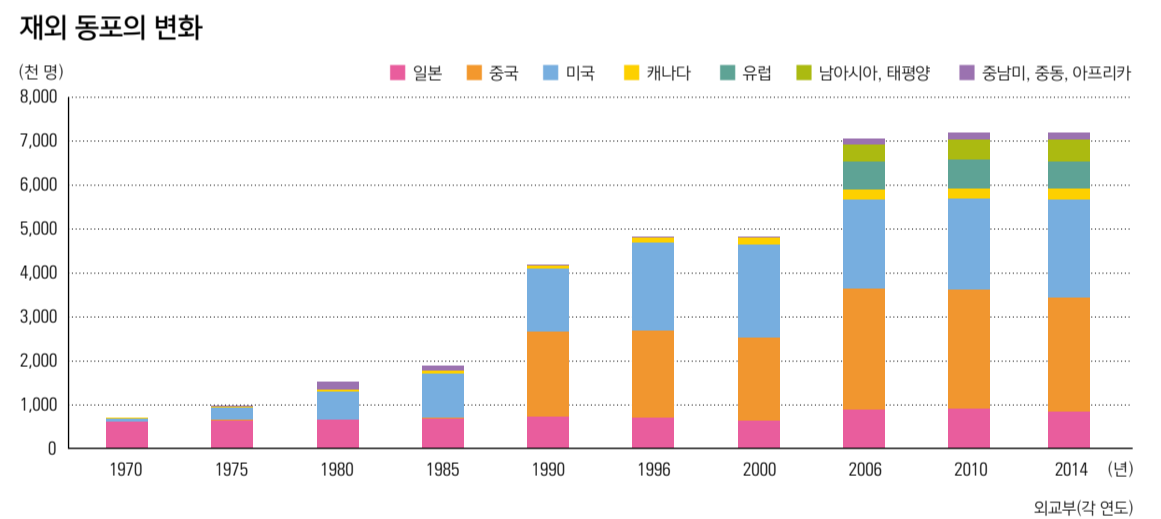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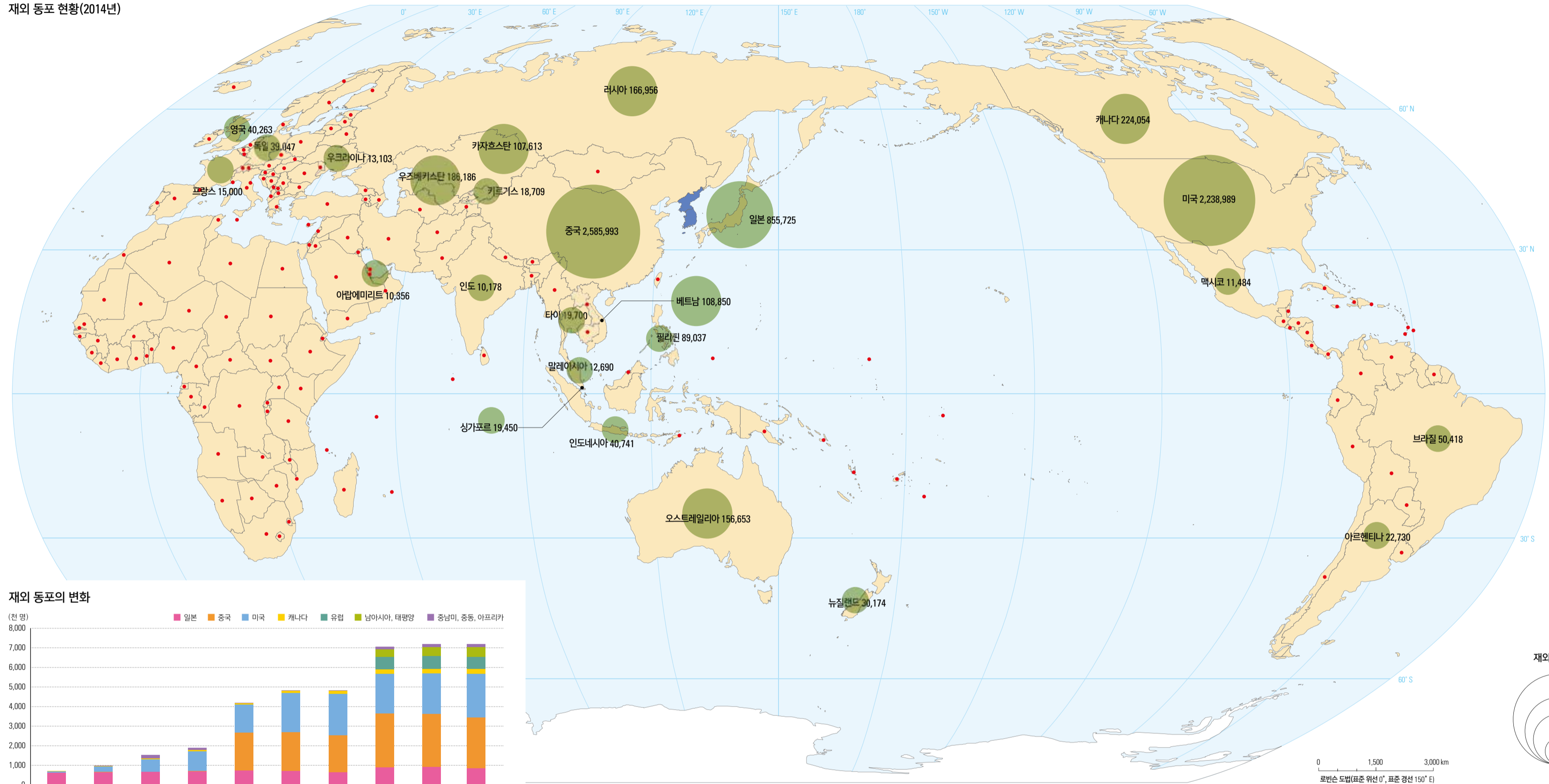


주간 인구는 해당 지역의 상주 인구에 타 지역에 서 유입된 통근·통학 인구(유입 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통학 인구(유출 인구)를 뺀 것이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상주인구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반면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부산 북구, 서울 도봉구는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아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의 80% 미만이다. 2010년의 평균 통근 시간은 33.7분, 평균 통학 시간은 31.1분이며, 1시간 이상 통근·통학 비율은 15.6%, 1시간 이상 통학 비율은 13.8%로, 예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시·군·구 중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348.1),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광명시(79.1)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강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200보다 커서 주간 인구가 상주인구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반면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부산 북구, 서울 도봉구는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아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의 80% 미만이다. 2010년의 평균 통근 시간은 33.7분, 평균 통학 시간은 31.1분이며, 1시간 이상 통근·통학 비율은 15.6%, 1시간 이상 통학 비율은 13.8%로, 예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 이동

재외 동포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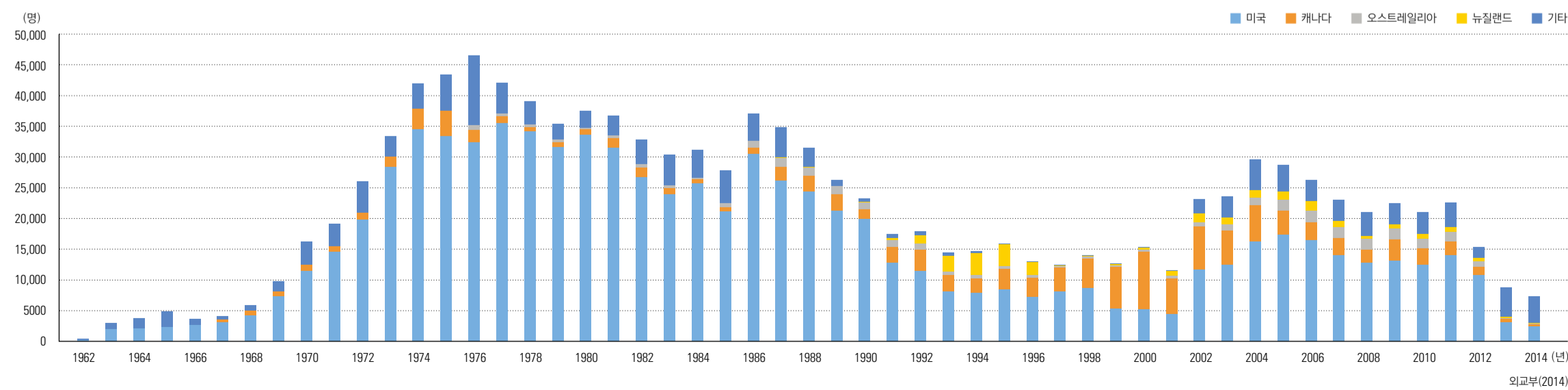


내국인의 국제 이동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거주 인구로 나눌 수 있다. 재외 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동포는 2014년 현재 718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구 소련 지역 등에 많이 분포한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 이후 조선족이 중국 동포로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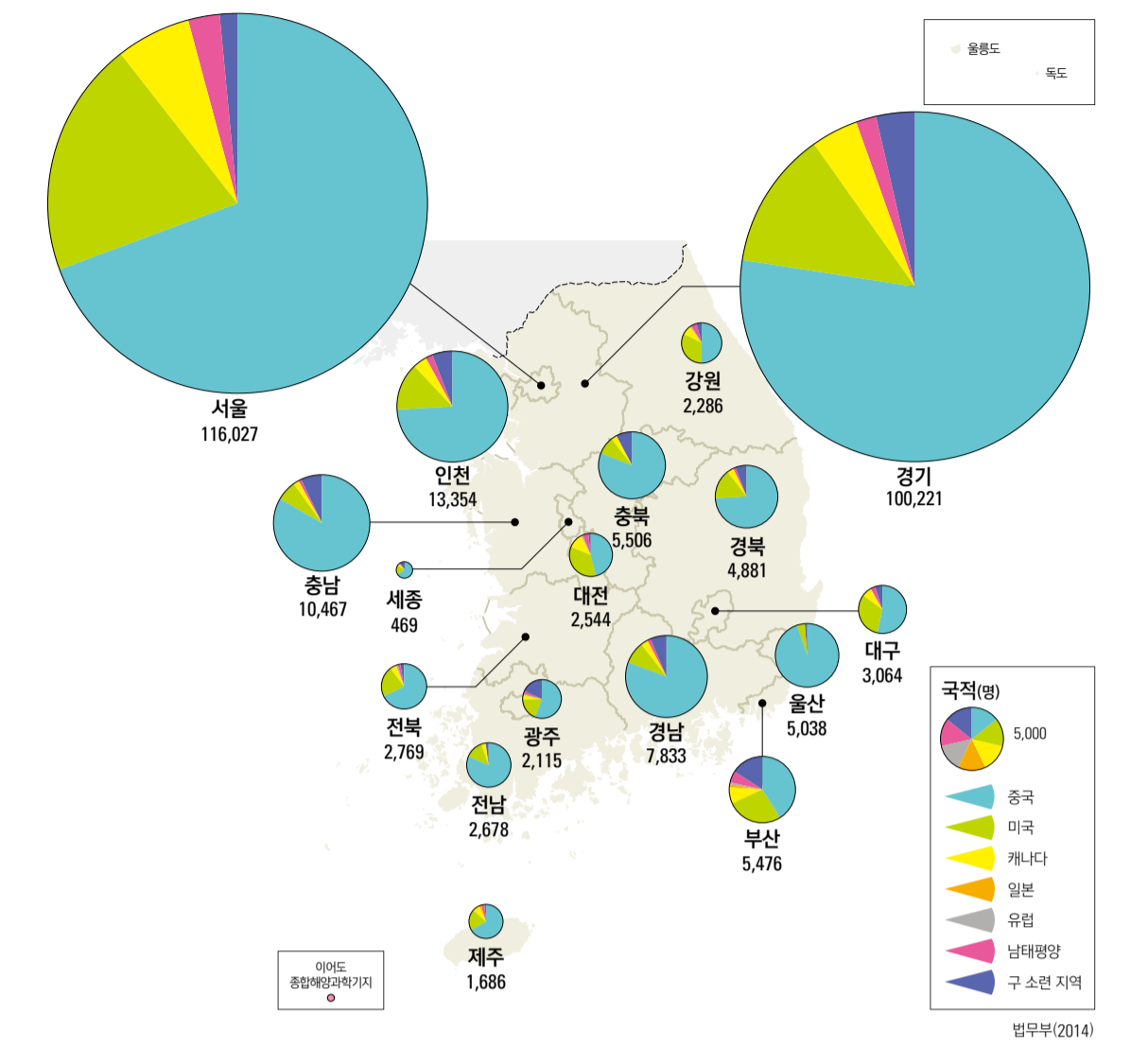
고려인이 있다. 내국인의 국외 이주는 초기 미국 중심에서 점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2006년 약 27만 명에서 2014년 약 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외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이 허용되면서 중국 및 구 소련 지역(독립 국가 연합) 국적 동포들이 늘어났다. 외국 국적 동포를 체류 자격(비자)별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재외 동포(F-4) 자격

\* 재외 동포 1) 재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2) 외국 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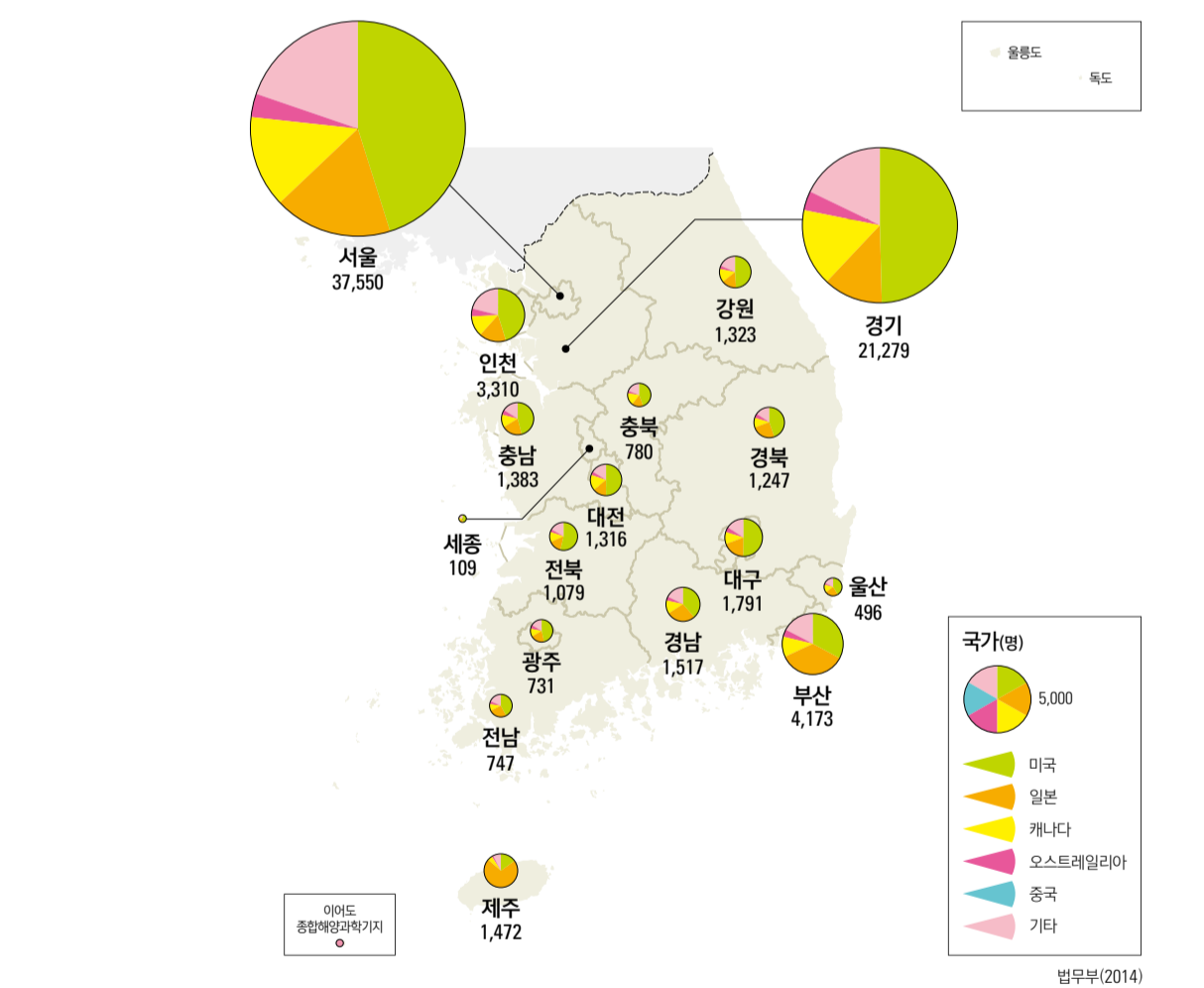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국외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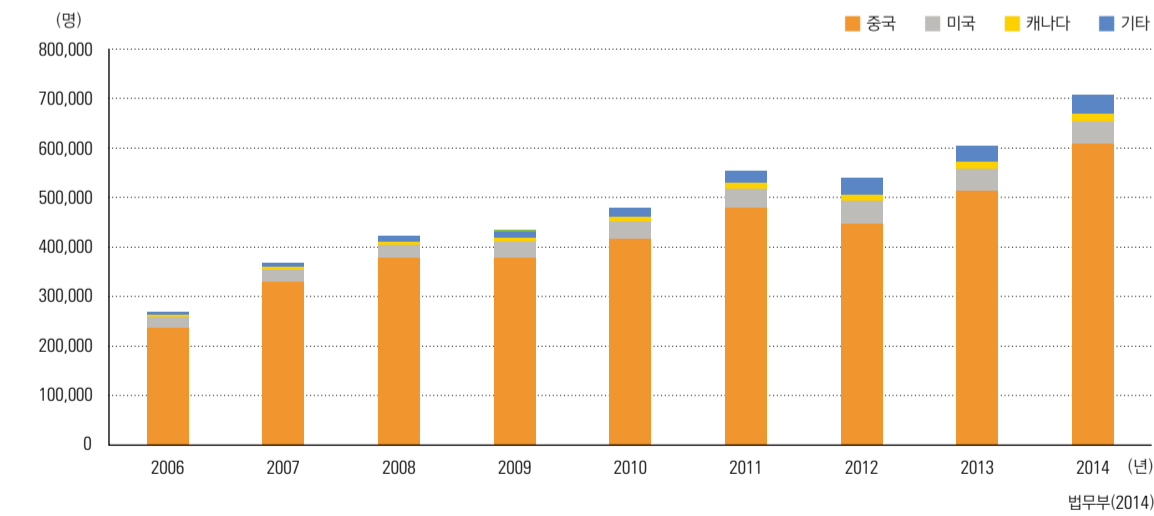
외국 국적 동포 거주 신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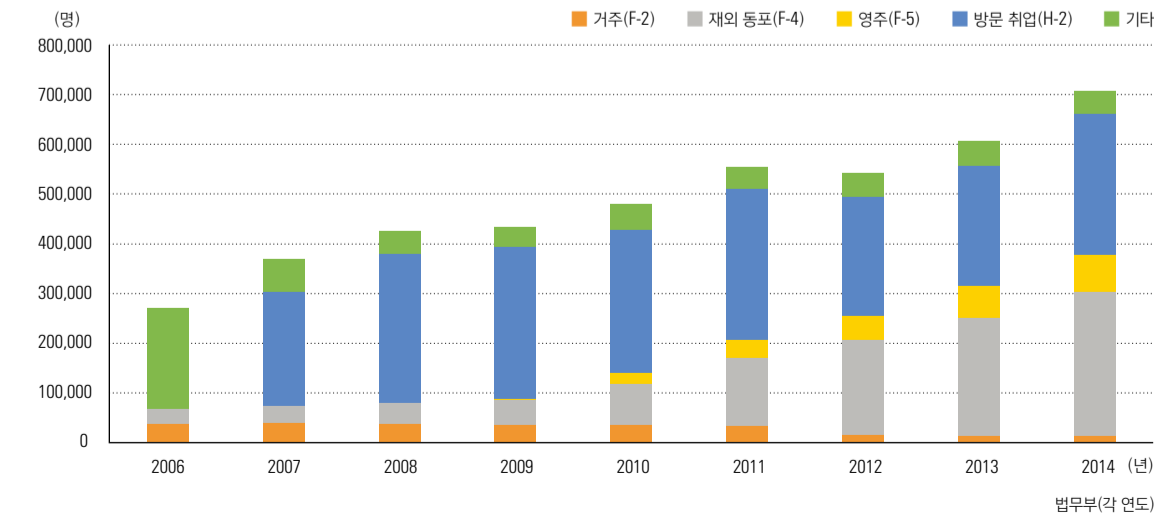
재외 국민 거주 신고(2014년)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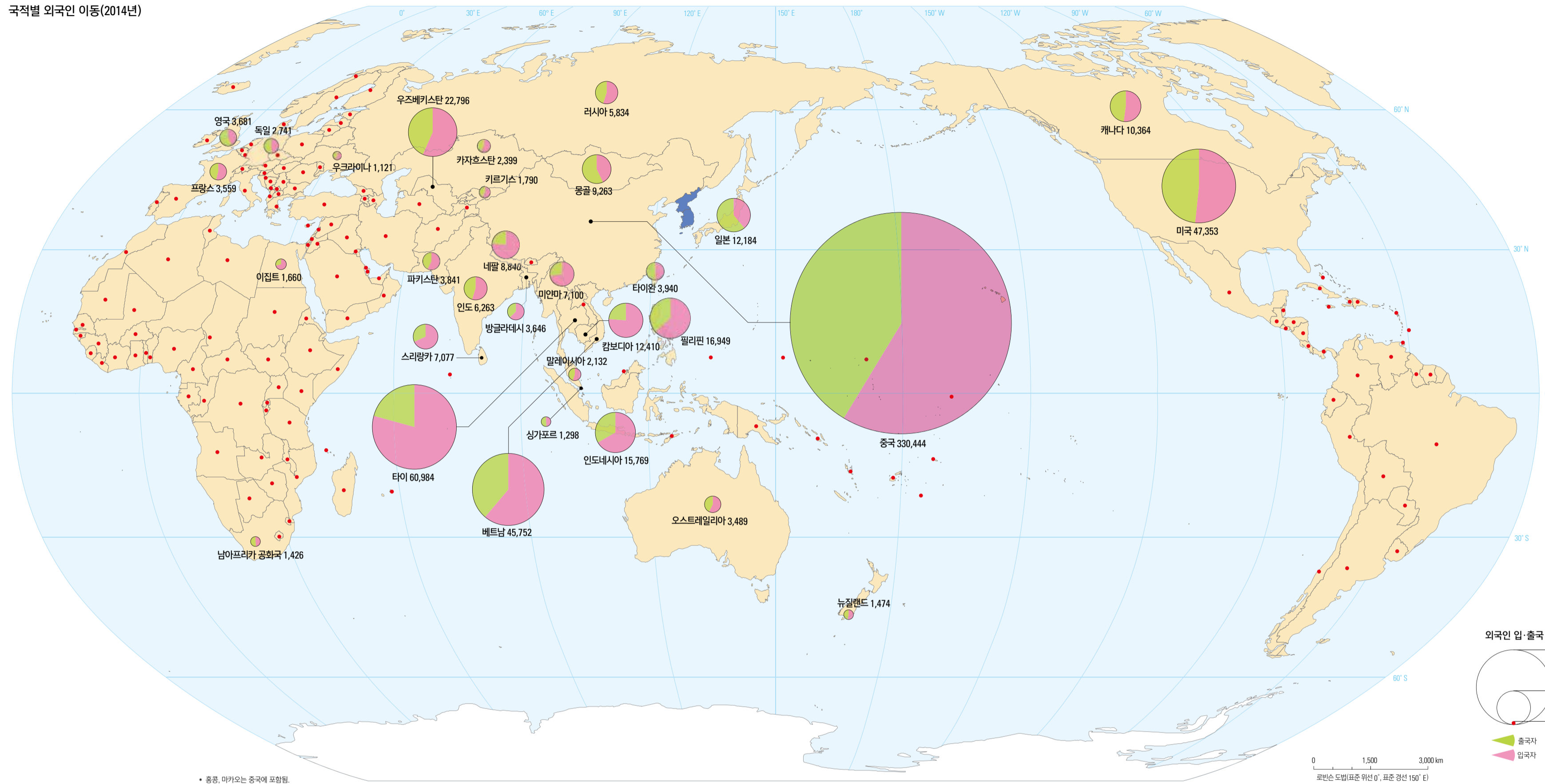
체류 자격별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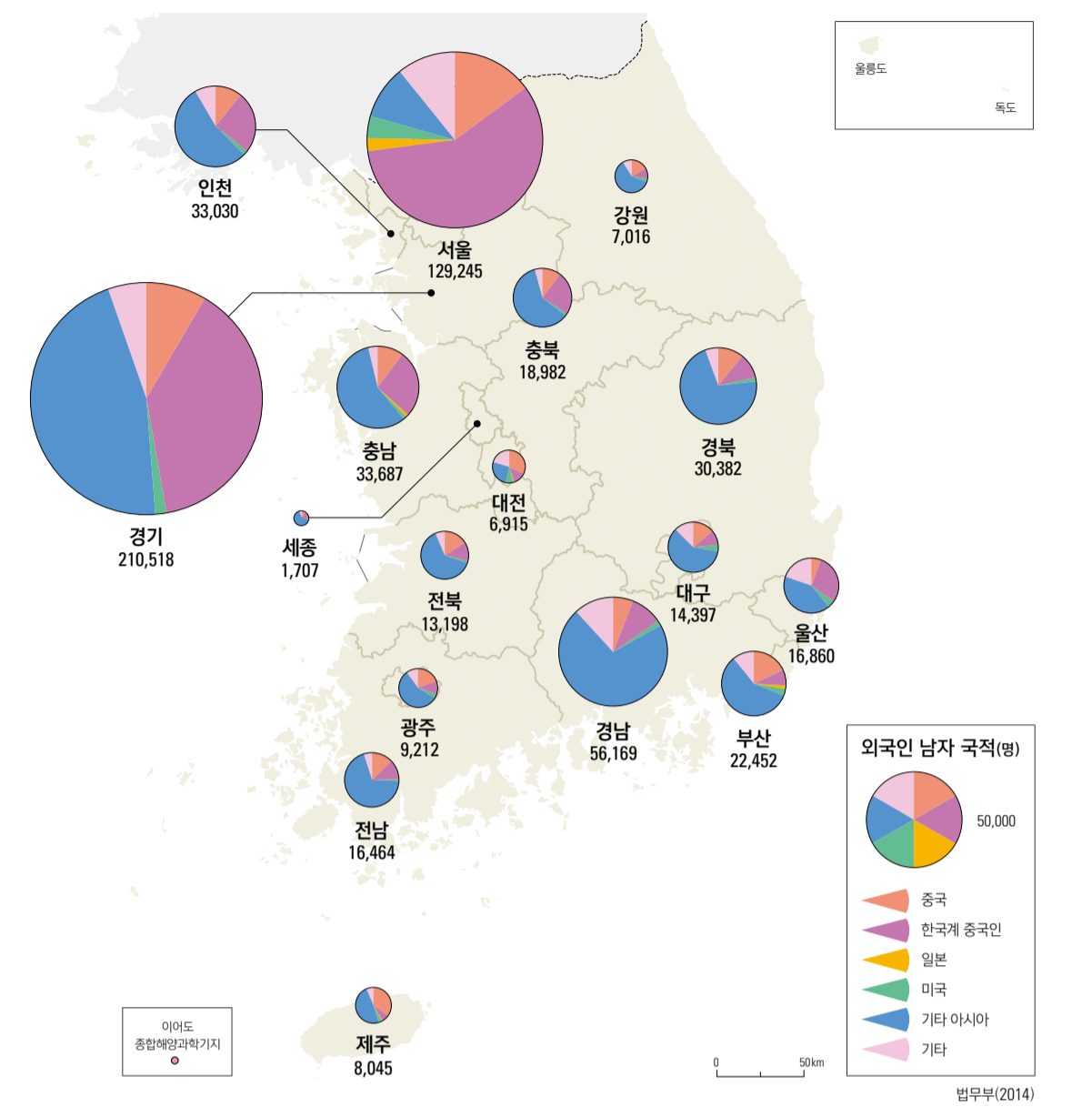
국내 유입 북한 이탈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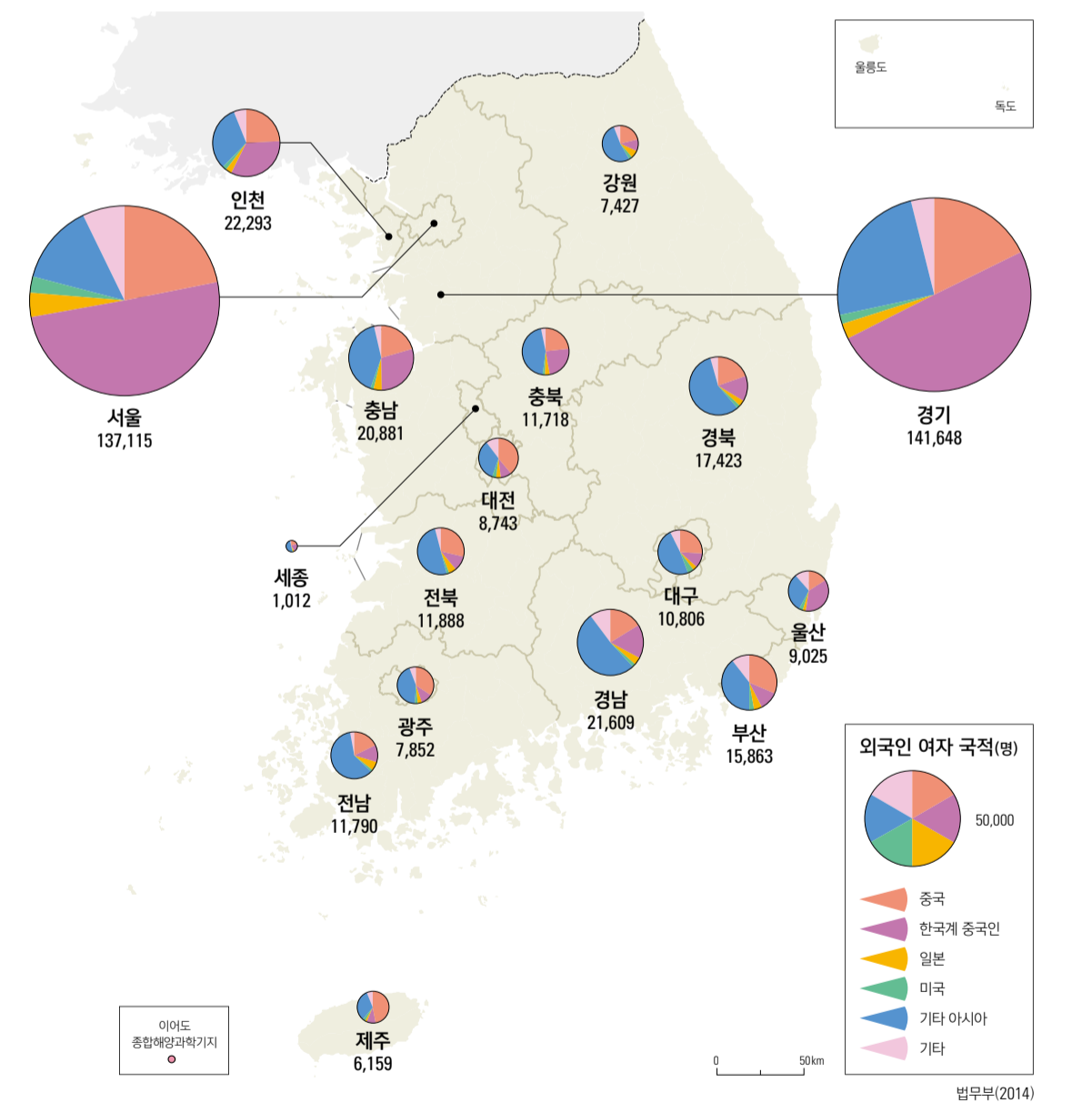
국적별 외국인 이동(2014년)



외국인 남자 국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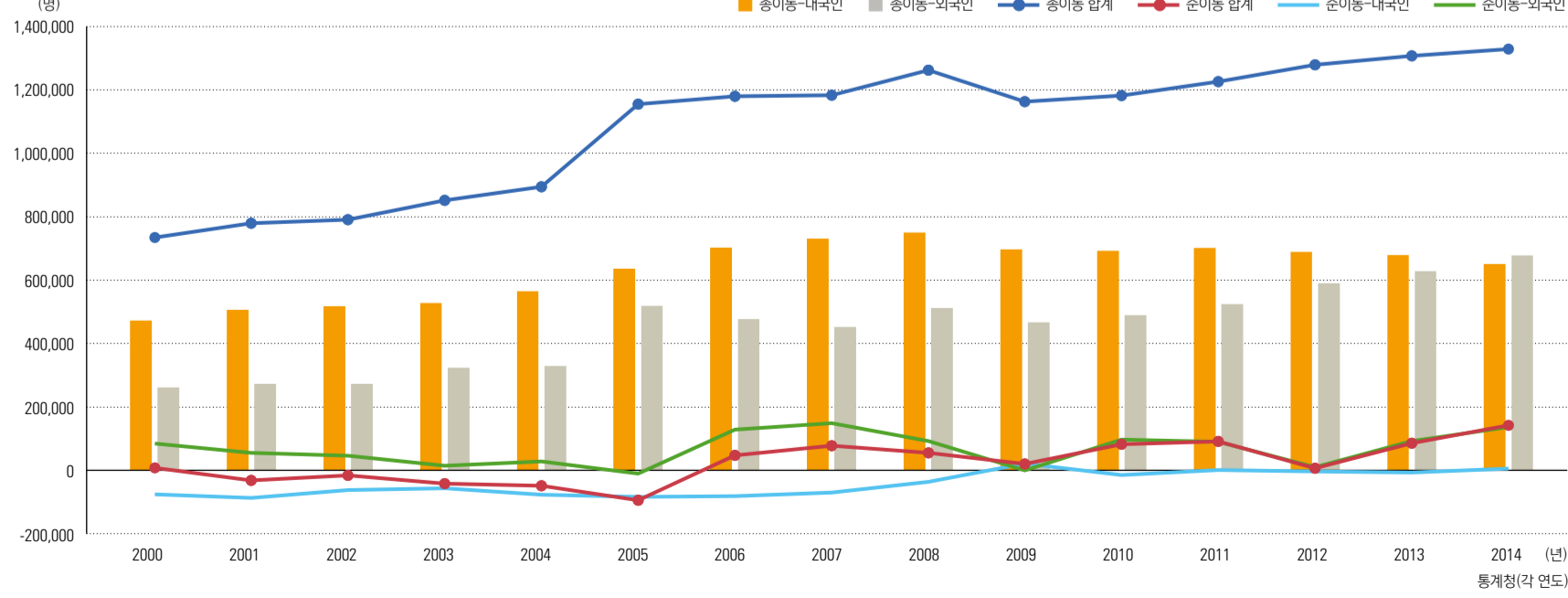


외국인 여자 국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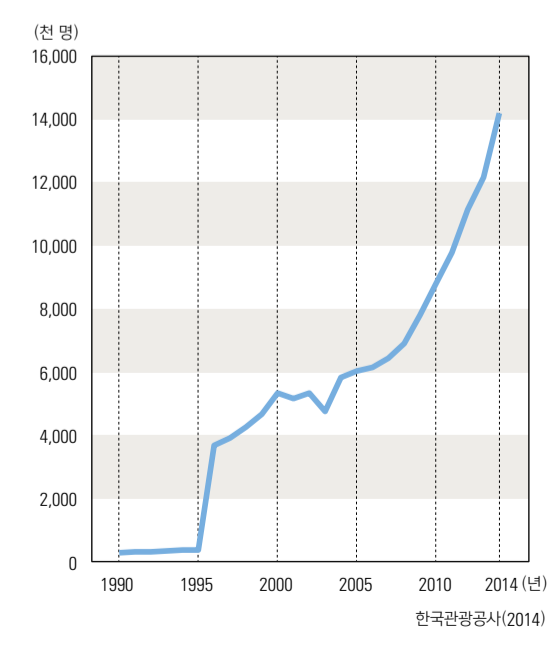


국제 인구 이동 통계는 상주지 국가를 떠나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이동한 사람을 집계한다. 외국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체류 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이며, 출국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 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이다. 국제 이동자는 입국자와 출국자를 합한 것이며 국제 순이동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이동은 2000년 73만 명(내국인 47만 명, 외국인 26만 명)에서 2014년 133만 명(내국인 65만 명, 외국인 68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순이동은 2000년 8천 명(내국인 -7만 6천 명, 외국인 8만 4천 명)에서 2014년 14만 2천 명(내국인 5천 명, 외국인 13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외국인 국적자의 총이동 현황을 보면, 중국이 약 33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타이, 미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이 1만 명 이상이다. 내외국인의 국적 변동 통계는 국제 인구 유입(귀화, 국적 회복), 인구 유출(국적 상실, 국적 이탈) 등으로 구분된다. 1990년대에는 국적 상실자가 많았으나, 2000년부터 외국인 혼인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8년 약 31만 명에서 2014년 약 180만 명(장기 체류자 138만 명, 단기 체류자 4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불법 체류자도 국제 이동에 포함되는데, 1998년 약 10만 명에서 2014년 약 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시적인 국제 인구 이동으로는 외래 관광객이 있다. 외래 관광객은 총 외국인 입국자에서 외교, 방문/동거, 거주, 군인, 영주 자격으로 입국한 자를 제외한 수치로 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을 의미한다. 외래 관광객은 1990년에 27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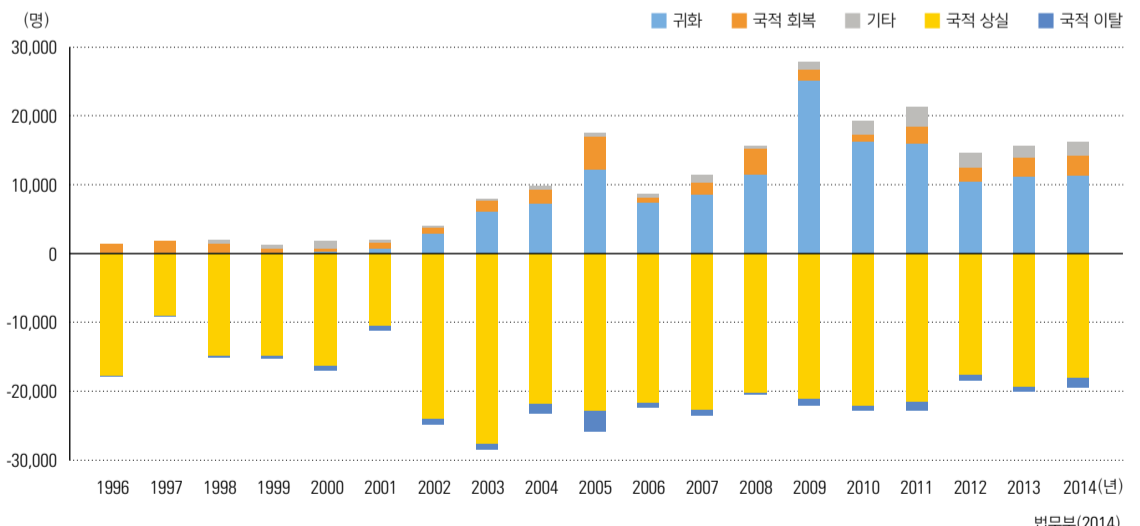
국제 이동(2000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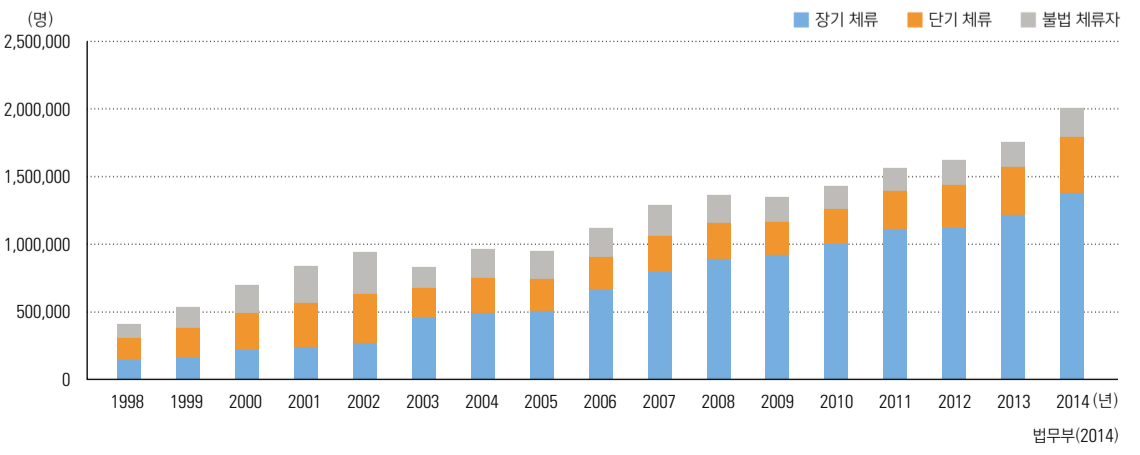
외래 관광객



국적 통계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 국적자를 성별, 국적별,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법무부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은 1,091,531명(남성 628,279명, 여성 463,25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6,360명(24%), 경기도 352,166명(32%)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은 취업, 연수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결혼 이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적별, 지역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시도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경기(34%), 서울(21%), 경상남도(9%), 충청남도(5%)의 순서인데 비해, 여성은 경기(31%), 서울(30%), 인천(5%)의 순서로 분포한다.